

황 선 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언어 예절에 따른 높임법 교육  
- 고등학교 국어 생활 교과서를 중심으로 -

200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 전공  
송 유 심

# 인 준 서

송유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 개요

본고는 사회 변화와 발달에 따라 언어 예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상황에 적합한 언어 사용 지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언어 사용 중에서 높임법은 사회적, 관습적 현상과 밀접한 영향 관계가 있으므로 특히 학습자에게 필요한 부분이며 강조될 부분이다. 하지만 높임 표현은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되어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는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런 높임 표현의 사용을 하기란 쉽지 않다.

국어 생활 교과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생활로서의 국어를 익힐 수 있게 하였다. 규범이나 이론을 단순 암기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하고 활용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본고는 활동 중심의 교육 방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역할극 활동을 중점으로 언어 예절에 따른 높임법 지도를 연구하였다. 역할극은 학습자들이 자신이 학습해야 할 목표를 중심으로 장면을 구성하여 역할을 해봄으로써 실질적인 학습 목표에 접근할 수 있어 언어 예절과 높임법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본고는 먼저 높임법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높임법은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거나, 대상을 대우하는 체계로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 특수 어휘에 의한 높임법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서와 고등학교 국어 생활 교과서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의 단원에 대한 내용 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높임법 명칭 통일성의 문제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활동 사항으로는 국어 생활 교과임에도 기본적 이론을 확인하는 수준의 활동과 지식 습득을 위한 활동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한 바른 높임 표현들을 실생활과 연결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역할극을 국어 교육과 연관 시켜 지도 교육 방안을 살펴보았다.

역할극의 개념과 방법 및 역할극의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역할극의 수업 모형의 단계로 문제 인식과 준비 단계 → 역할 정하기 단계 → 역할극 실연하기 단계 → 점검하기 단계로 제시하였다.

역할극 수업 모형에 따른 높임법 지도는 실제 1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한 결과 역할극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수업에 대하여 흥미를 갖게 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학습자들에게 경쟁보다는 협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역할극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언어 예절에 따른 높임법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언어 향상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법이 제공된다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	2
3. 선행 연구 검토 .....	4
II. 높임법에 관한 이론적 검토 .....	8
1. 높임법의 개념 및 명칭 .....	8
2. 주체 높임법 .....	9
3. 상대 높임법 .....	13
4. 객체 높임법 .....	20
5. 특수 어휘에 의한 높임법 .....	21
6. 높임법과 호칭 .....	25
7. 높임법의 결정 요인 .....	26
III. 고등학교 국어 생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	29
1. 국어 생활 교과의 교육과정 해설서 검토 .....	29
2. 국어 생활 교과서 분석 .....	31
IV. 국어 교육과 역할극 지도 교육 방안 .....	50
1. 국어 수업과 역할극 .....	50
2. 국어 수업의 역할극 방법 .....	51
3. 역할극의 교육적 효과 .....	53
4. 역할극과 언어 교육과의 관계 .....	53

5. 역할극을 통한 언어 교육의 방향 .....	55
<b>V. 역할극을 활용한 높임법 지도의 실제 .....</b>	<b>59</b>
1. 학습 지도 계획 .....	59
2. 학습 지도안 .....	61
3. 세부 계획안 .....	67
4. 역할극을 활용한 수업의 효과와 반성 .....	74
<b>VI. 결론 .....</b>	<b>77</b>

자 료  
참 고 문 헌  
ABSTRACT

## 표 목 차

<표 1> 언어 예절과 관련된 ‘국어 생활’ 교과서 단원 및 내용 체계 ...	31
<표 2> 국어 생활 ‘중앙교육’ 교과서 단원 학습 계획 .....	36
<표 3> 국어 생활 ‘법문사’ 교과서 단원 학습 계획 .....	38
<표 4> 국어 생활 ‘한국미디어’ 교과서 단원 학습 계획 .....	41
<표 5> 역할극 절차 .....	52
<표 6> ‘역할극을 통한 언어 예절의 높임법 지도’ 학습 계획 .....	60
<표 7> 학습 지도안 1/2차시 .....	61
<표 8> 학습 지도안 2/2차시 .....	66
<표 9> 모형 적용 후 소감 분석 .....	75

## 자 료 목 차

<자료 1> 바르게 고쳐 봅시다. ....	80
<자료 2> 역할극을 꾸며 봅시다 .....	81
<자료 3> 역할극을 꾸며 봅시다 .....	82
<자료 4> 역할극을 꾸며 봅시다 .....	83
<자료 5> 소감문 작성 .....	84
<자료 2> 상호 평가지 .....	85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하다. 그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상호 관계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언어를 통한 의사 소통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좋게 만들 수도 있으며, 상대방으로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에 맞는 언어 생활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사람들의 문화, 성품, 친밀감 정도 등도 담겨 있다. 언어 예절 중에서도 특히 높임법에 맞는 언어 사용은 우리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유교 중심의 문화와 계급 구조의 신분 사회였던 만큼 높임법은 다양하게 발달 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전통 문화의 정신과 가족 관계의 구조가 변화되면서 언어 양상도 역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가족 관계가 수직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점차 바뀌어 가는 현실은 높임 표현에 대한 인식이 줄어 다양한 상황과 대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웃어른을 각듯이 공경 하던 의식 또한 자연스럽게 약화되었다.

언어는 시대·사회 변화와 함께 변하는 것이므로 올바른 언어 생활이 반드시 보수적인 언어 예절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직장이나 가정의 상위자 그리고 연장자에 대한 존대(尊對)가 없어진 것은 아닌 만큼 높임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된다.<sup>1)</sup> ‘높임법’은 국어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로 사회적, 관습적 현상과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으므로, 사회생활을 통해 다양한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야 하는 학습자들에게 다른 기본 문법요소들 보다 까다로운 선택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높임법 교육을 통

---

1) 최홍자, 「국어 높임법 지도에 관한 연구 -중학생 대상으로-」, 어문학회 18호, 1995, P.74.

해서 언어 예절을 익히고 또 실천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사회의 변화와 발달에 따라서 높임말의 경시와 혼란이 심한 시점에서 볼 때 올바른 높임법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의 목적은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역할인 ‘상황에 적합한 높임법의 정확한 사용 지도’를 위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 2. 연구 방법 및 범위

우리나라 문법 체계 중에서 ‘높임법’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되었다. 이런 높임법을 이론적으로 배우게 될 때 딱딱하고 어려운 느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임법을 배웠더라도 습관적으로 예의 있는 언어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 내용 그대로 높임법에 맞는 언어 예절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언어의 사용은 일시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지 못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반복 학습과 직접적인 실연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적합한 언어 생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고등학교의 ‘높임법’ 교육은 기본 공통 국어 교과와 문법 교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높임법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이론에 치우친 교과보다 좀 더 생활에서 친숙하게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국어 생활’ 교과서에 초점을 맞췄다. 배운 내용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연습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에 따르면 ‘국어 생활’ 과목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국어 생활 과목의 성격은 ‘실제적 생활로서의 국어’를 익히는 과목이다. 실제적 생활이란 물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 모두에 관여되는 것인데, 전자가 ‘실용적인 생활의 국어 사용’이라면 후자는 ‘문화·이념적인 생활의 국어 사용’이라 할 수 있다. 이 과목은 국어 현상을 바탕[질료]으로 한 국어의 규범적·사회적·문화적 작용태를 학습자가 주인이 되어서 경험하게 하는 과목이다. 그러니까 학습자

가 주인이 되어 봄 직한 국어 현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조직해 주느냐가 이 과목 교육 과정 운영의 핵심이 된다.<sup>2)</sup>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어 생활’ 교과서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의 하나로 역할극을 적극 활용한 수업 방안을 모색하였다. 역할극을 통한 높임법 교육은 학습자가 주인이 되어 직접 상황에 맞는 언어를 구사해 볼 수 있어서 국어 생활 교과의 성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역할극을 통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본론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선 그 효과와 필요성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역할극은 학습자들이 자신이 학습해야 할 목표를 중심으로 장면을 구성하여 역할을 해봄으로써 실질적인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표면적인 면에서 바른 자세를 강요할 수 있지만 학습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지 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접근을 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자신이 직접 체험하여 봄으로써 그 의미와 학습 목표에 분명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역할극은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표면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접근을 통하여 효과적인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sup>3)</sup>

역할극의 교육적 효과를 언어 사용 능력 향상 면에서 보면 언어는 사회 생활 속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고 과정을 표현하는 매체이다. 언어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역할극의 과정은 서로 협동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언어사용 현실이 통합적으로 되어 있어 언어사용 능력을 분리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사고, 행동들이 함축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sup>4)</sup>

---

2) 교육 인적 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대한 교과서(주), 2001, p.91.

3) 신현재 외, 『학습자 중심의 국어과 수업방안』, 도서출판 박이정, 2002, p.59.

4) 노태권, 「교육연극을 통한 한국어 사용 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5, p.14.

역할극을 이용한 높임법 교육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학습자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이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 등 학습의 다양성을 획득할 수 있게 때문이다.

본 연구는 먼저 높임법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언어 예절에 따른 높임법 교육을 함에 있어서 고등학교 ‘국어 생활’ 교과서를 중심으로 각 단원의 영역과 수업 활동에 대한 학습 내용을 분석하였다. 언어 예절에 따른 높임법의 수업 방안으로는 역할극을 활용한 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실제 고등학교 1학년 두 학급을 대상으로 역할극을 활용한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 계획은 3차시에 걸쳐서 계획했지만 시간의 부족으로 2차시에 걸쳐서 실시하여 체계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흥미를 이끌었고, 무엇보다 상황에 맞는 역할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새로운 수업으로 기억될 것이라 생각된다.

### 3. 선행 연구 검토

높임법에 관련된 다음의 선행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의 높임법 사용 실태 조사와 지도 방안 제시, 국어나 문법 교육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최홍자(1995)의 연구는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역할인 ‘상황에 적합한 언어의 정확한 사용 지도’를 위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을 두고 설문 조사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높임법 사용의 정확도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높임법 사용이 주로 웃어른과의 대화 장면에서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편지글 형식으로 웃어른께 글을 쓰게 하였고 두 번째 단계는 높임법의 요소 및 체계에 관한 설문을 작성, 조사하였다. 높임법의 지도 방안에 있어서 높임법의 지도 내용은 ‘높임법에 대한 의식 지도, 높임법의 원리 지도, 높임법의 표현 요소 지도’이다. 높임법의 지도 방법은 교과 학습 시간에서의 지도 방법으로는 ‘학생 활동 위주의 탐구 학습, 다양한 실제 장면 연출을 통한 지도, 타 영역과의 관련지도’와 ‘생활 장면에서의 지도 방법’이 있다.

황화성(2000)은 주체 높임법과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의 쓰임과 호칭과 어휘 관한 설문 조사, 높임말 사용에 관한 기존 지식 정도를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재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쉽게 높임말로 바꾸어 썼지만,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는 단어의 경우 제대로 쓰지 못한다. 그리고 높임말 사용에 관한 기존 지식 정도에 따라서 대부분의 아동들은 친밀한 경우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아동들은 어렸을 때부터 생활해오거나 만나 온 혈연관계의 친척보다 혼인관계로 맺어진 친척에게 높임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양승희(2002)는 높임법 교육이 국어나 문법 교육에 어떤 교육적 효과성을 갖고 있으며, 어떤 내용을 높임법의 내용으로 삼을 것인가를 모색하여 ‘기술 문법의 문제점을 이용한 탐구학습’으로 높임법의 명칭의 문제를 이용한 탐구 학습, 통사론적 측면의 문법 범주와의 통합 학습 내용으로 방법을 제시하였다. 학습 방안으로는 ‘상황을 통한 교수·학습, 어휘적 높임 학습의 강조, 오용 사례를 통한 학습’의 내용이다.

윤천탁(2004)은 상대 높임법과 관련한 내용을 학교 문법에서 기술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을 제기하여 첫째, 등급의 명명을 할 때, 명령법이나 평서법 등의 어미에 의한 명명보다는 높낮이의 정도에 따른 명명으로 등급을 나눌 수 있음을. 둘째, 등분이 체계를 너무 명시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상대를 높이는 마음이 어떻게 언어로 표현되는지에 중점을 두어 여러 등분이 가능함을. 셋째, 말하는 이와 상대가 한 자리에 있지 않은 상황, 즉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다양한 매체에 등장하는 여러 높임표현에는 다양한 표현이 있음을 밝혔다.

권민선(2005)은 ‘상대 높임’에 주목하여 우리의 언어 예절을 살펴보고 아이들의 대인 관계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등학생의 존대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설문 조사 후 통계 처리 방법을 활용하여 존대 표현은 어른에 대한 경의의 표현 수단이기도 하며, 사교의 수단이기도 하고, 또 말하는 사람의 품위를 드러내어 청자로 하여금 호감을 가지게 하는 다양한 기능과 여러 기능 중, 원활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올바른 존대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학습 방안의 지도 방법으로는 학습 동

기 유발의 측면에서 ‘노래 가사 바꾸어 보기’, ‘실제 상황 예측하기’ 학습 과제의 측면에서 ‘소설 속의 존재 표현 찾기’, ‘방송 드라마 대본을 이용하기’가 있다. 그리고 교과 학습 시간에 익힌 높임법을 ‘일상 언어 생활에 활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다음은 역할극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검토한 내용이다.

김남희(2003)는 국어과 교육이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아래 구체적인 학습 방법으로 교육 연극을 제시하였다. 교육 연극의 단계로 준비 단계 → 연극 활동 → 토의 및 정리의 세 단계를 제시하고 각 단계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교육 연극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수업에 대하여 흥미를 갖게 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매우 유효했고, 특히 학습자 자신이 수업의 주체이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언어 기능간의 통합을 이루게 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여 제시하였다.

김성민(2004)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보다 현실적이면서 능률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담화 담원의 구체적인 학습 방안으로 역할극, 광고언어, 속담 표현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제시하였다. 역할극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직접 대본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등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할극만을 통해서 학습의 명확한 요점을 전달할 수 없으며, 산만함으로 인해 학습 효과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노태권(2005)은 역할극 모형을 통해서 외국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사로부터 배우는 한국어 학습 과정이다. 한국어 학습 과정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잠재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좋은 표현들을 배우게 된다. 잘못된 표현이나 좋지 않은 표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연스럽게 교정을 통해 긍정적인 한국어 학습이 가능하다는 사실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아무리 좋은 교육 방법이라도 그것을 학습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그 결

과는 달라진다. 학습자들이 교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방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상의 논문을 살펴보았는데 높임법의 지도 방안으로 높임법에 대한 의식 지도, 높임법의 원리 지도, 표현 요소 지도이며 지도 방법으로는 탐구학습, 생활 장면에서의 지도 방법, 상황을 통한 방법, 어휘적 높임 학습 강조, 오용 사례를 통한 학습 등의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다. 역할극을 연구한 논문은 국어과 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담화 단원에서, 외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역할극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높임법 교육을 국어 생활 교과서에 초점을 맞춰서 실제적인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역할극을 활용하였다. 역할극은 통한 활동은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높임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II. 높임법에 관한 이론적 검토

본 장에서는 높임법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여 정리하였는데, 고등학생 대상으로 높임법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여 이관규(2004)의 ‘학교 문법’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는 여러 문헌을 추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높임법의 지도 방법으로 역할극을 활용하였으므로 호칭어와 높임법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도 간단히 제시하였다.

즉 본 장에서는 높임법의 개념 및 명칭, 높임법의 종류, 호칭어와 지칭어, 높임법의 결정 요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 1. 높임법의 개념 및 명칭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높임법이라 한다. 높임법은 우리말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모든 언어 가운데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높임법은 누구를 높이느냐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나누어진다.

남을 높여서 말하는 법을 통틀어 높임법(또는 존대법)이라 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체높임법(또는 주체존대[법]), 상대높임법(또는 상대존대[법])이라 하면 체계가 선명하고 용어의 혼동이 덜한 이점이 있고(필요에 따라서 객체높임[법]-또는 객체존대[법]-, 자기낮춤[법] 같은 용어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높임 또는 낮춤의 대상이 지시되어 있어서 혼란의 우려가 적다.<sup>5)</sup>

즉 높임법은 어떤 대상을 어느 정도로 예우(禮遇)하느냐를, 즉 얼마나 높여 대우하고 낮추어 대우하느냐를 표현하는 체계이다.<sup>6)</sup> 학교 문법은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나뉘어 설명하고 있다. 문장론에서 문법 요소의 기

5)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2003, p.325.

6) 이익섭·채완,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2004, p.325.

능과 의미에 따른 높임 표현은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격식 체인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가 있으며, 비격식체인 해요체, 해체로 설정되어 있다.

높임법의 명칭은 높임법과 함께 존대법, 경어법, 대우법으로 사용되었으나, 학교 문법에 따라 본 연구는 ‘높임법’의 명칭으로, 상대 높임법의 네 가지 등급 명칭도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2. 주체 높임법

주체 높임법은 화자가 서술의 주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는 대개 주어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서술어에 나타나는 것이다. 7)다음으로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께서’가 주체 높임법 표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높임 접미사 ‘-님’은 그것이 붙은 체언이 주체로 쓰일 때에만 주체 높임법 표지로 인정될 수 있다.

- (1) 어머니, 선생님께서 오십니다.
- (2) 선생님, 선생님께서도 그 얘기를 좋아하시는군요.

(1), (2)는 주체높임의 예로서 용언에 ‘-(으)시-’를 붙여서 주체를 높인 예이지만 설사 주체가 ‘-(으)시-’를 붙여서 높여야 할 대상이라 할지라도, 듣는 이가 주체보다도 더 높은 경우에 ‘-(으)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 (3)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이로서는 ‘-(으)시-’를 붙여 높여야 할 대상이지만 듣는 이인 할아버지보다는 낮기 때문에 (즉, 할아버지보다는 낮추어야 할 상대이기 때문에) (3)과 같이 말해야 한다. 이른바 압존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주체가 비록 말

---

7) 이관규(2004), p.272.

하는 이보다는 낮지만 듣는 이보다 존귀한 경우에 ‘-(으)시-’를 붙여서 말하는 일도 있다. 주체가 말하는 이보다 더 존귀할 때 높임법을 써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주체가 말하는 이보다는 존귀하지 않은데도 듣는 이보다 더 존귀하기 때문에 듣는 이의 처지에서 주체를 높이는 일도 있는 것이다.<sup>8)</sup>

즉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오셨어요’는 비문이 되어 대상보다 더 높은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다른 사람을 높이고 싶더라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비문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시-’는 화자가 높임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표지이다.

- (4) a. 할아버지, 아버지 갑니다.
- b. ~할아버지, 아버지 가십니다.
- (5) a. ~할아버지, 철수 아버지 갑니다.
- b. 할아버지, 철수 아버지 가십니다.

청자 최상위 조건에서 (4a)는 청자와 명제에 나타나는 주격 대상 인물이 화자의 직계에 속하는 인물인 경우 그 대상 인물이 화자의 존대 대상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 인물에 대해 존대 표현은 쓰이지 않는다. (4b)는 ‘압존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자 중심주의에 대한 위배이기도 하다. (5)에서 청자는 화자의 직계에 속하는 인물이지만 명제에 나타나는 주격 대상 인물은 화자의 직계에 속하는 인물이 아닌 경우 그 대상 인물에 대한 존대 표현은 두 양상으로 나타난다. 화자의 의식에서 존대 대상 인물로 인식되는 경우는 존대 표현이 쓰이는 것이나 그렇게 인식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존대 표현이 쓰이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발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규범성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적인 발화나 담화에서 훨씬 더 잘 나타나는 대우 현상이라 할 수 있다.<sup>9)</sup>

---

8) 남기삼·고영근(2003) p.326-327

9) 이윤하, 『현대 국어의 대우법 유형』, 도서출판 역락, 2001, p.157.

- (6) 퇴계는 조선시대의 뛰어난 성리학자였다.
- (7) 퇴계는 조선시대의 뛰어난 성리학자시였다.
- (8) 대통령이 오늘 담화를 발표하였다.
- (9) 대통령께서 오늘 담화를 발표하셨다.

(6), (8)은 국사교과서나 라디오 방송 해설 같은 데서 쓰일 수 있다.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직업적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7)은 퇴계의 후손이 퇴계를 일컬어 할 수 있는 말로써 (9)와 함께 각별한 친밀감<sup>10)</sup>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기술하는 의미가 있다.

- (10) 과장님은 직장이 가까워서 편하시겠어요.
- (11) 과장님은 직장이 가까우셔서 편하시겠어요.

‘직장’은 간접존대에서 필수적으로 ‘-(으)시-’를 동반해야 하는 명사가 아니다. 그런데 (11)에서와 같이 ‘-(으)시-’를 동반한 것은, 말하는 이가 ‘직장이 가깝다’는 사실을 높임의 대상인 ‘과장님’의 생활과 관계가 깊은, ‘과장님’과 관계되는 특수한 사실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으)시-’의 용법은 단순히 나이, 지위, 직업, 성별 등 주어진 사회적 조건에 의해, 공식적으로,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혹은 듣는 이와 주체와의 대비에서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가 주체를 각별히 한 사람의 개체로서 친 애감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높이는 뜻이 더 있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 (12)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 (13) 선생님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10) ‘각별한 친밀감’은 횡적 유대 관계로서 오히려 높임 등급을 낮추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인적 관계’로 표현되어야 한다.

11) 남기삼·고영근(2004), pp.328-329.

주체를 높이는 데 있어서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인 높임 방법도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귀’나 ‘말씀’을 높이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할머니,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처럼 주체 높임법에서는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말에도 ‘-시-’를 결합시켜 간접적으로 높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을 쓰면서 존대하는 것도 화자가 주체를 평가할 때 주위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다른 한 실례가 된다.

(14) 철수가 결석했구나.

(15) 여러분, 내일은 한 사람도 결석하지 마세요.

주체 높임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의 기능이다. -시-의 기능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즉 -시-가 주격 대상 인물을 존대하는 기능을 가지는 형태, 상위의 신분성을 표시하는 서법이라는 견해, 중주어문을 상정하여 상위 주체와 하위 주체 또는 주체에 적당한 조건이 주어지면 -시-로서 존대가 된다는 입장, -시-가 통사적 과격을 해소하는 기능을 가질 뿐 본질적으로는 존대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 등이다.

즉 높임법은 하나의 사회적 규범으로서 당사자도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어느 정도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기대치(期待値)가 있고, 제삼자도 어떤 경우 높임법이 적절한 것인지를 다 알고 있다. 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여 그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예의범절이거니와 높임법도 그러한 예의범절의 하나인 것이다.

이윤하(2001)는 -시-의 쓰임 기능을 심리적인 상태의 ‘있다’적인 의미 속성을 가지는 심리적 행동주를 높이는 기능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로 국어는 ‘주제 부각형 언어’에 속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담화-중심적인 언어라는 점에 두고 있다. 특히 국어가 주제가 발달한 언어라 가정하는 경우, 서술어의 선택 제약이나 하나의 서술어는 단 하나의 주어와만 관련한다는 원리는 국어 문장의 기본적인 구조를 밝히는 데 유익한 것이다.

-시-가 경험주와 관련된다는 논의는 -시-의 쓰임 분포를 기초로 -시-가 비단 주격 대상 인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 대상 인물, 속격의 대상 인물, 청자, 기사문 서술어의 명사구 대상 인물, 관형질의 표제 명사구 대상 인물, 심지어는 극히 제약적인 목적격 대상인물, 그리고 여격 대상 인물과도 관련하는 점과 -시-의 어원이 중세 국어 '시다'와 관련하는 점을 중시하여 경험주를 상위문에 상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2)</sup>

### 3. 상대 높임법

상대 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특정한 종결어미를 씀으로써 말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법을 일컫는다. 종결어미는 그 높임의 정도에 따라 아주높임, 예사높임, 예사낮춤, 아주낮춤의 네 가지 등급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라 한다. 이 밖에 해요체를 두루높임, 해체를 두루낮춤이라 한다.

신문이나 잡지 혹은 소설 같은 인쇄물에서는 하라체를 쓴다. 이 하라체는 아주 낮춤의 뜻이 없다. 어느 특정한 개인을 듣는 이로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의 하라체는 명령형 이외의 어미가 해라체와 같기는 하나 높임이나 낮춤의 등급이 중화된 독립된 문체라 할 만하다.

상대(듣는 이) 높임법의 종결 어미를 격식체인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와 비격식체인 '해요체, 해체'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격식체는 표현이 직접적이고 단정적이며 객관적인 데 반해, 비격식체는 부드럽고 비단정적이며 주관적이다. 격식체의 어미는 대체로 수가 적고, 네 가지 문장종결법(문체법)을 표시할 수 있는 데 불과하지만, 비격식체는 더 많은 어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의혹, 추측, 감탄... 등의 여러 가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16) 선생님 안녕하셨습니다까? 오래간 만에 뵙습니다. 그런데 하시던 일은 잘 되셨나요.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지요?

12) 이윤하(2001), pp. 173~174.

이 문장은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섞여 쓰였는데, 격식체는 상대방에게 당연히 표시해야 할 존경을 나타내고, 상대방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응분의 대우를 하는 동시에 상대방과 대비되는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뒤에 오는 비격식체는 격식체가 갖는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더 친근하고 융통성 있는 정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sup>13)</sup>

상대 높임법의 각각 등급에 따라 종결 표현이 ‘-하십시오, -오, -게, -어라;-어요, -어’로 대표적으로 나타나지만 다양한 종결 표현들을 가지고 있다. 하십시오체는 ‘-소서, -나이다, -하나다, -올시다 ...’, 하오체는 ‘-소, -구려, -리다 ...’, 하계체는 ‘-네, -나, -구세, -는가, -세 ...’, 해라체는 ‘-느냐, -다, -자, -마, -니, -려무나 ...’등 여러 종결 형태가 있다.

해체는 대부분이 ‘-어’로 끝나지만 ‘-야, -지, -나’ 형태도 있다. 해요체의 모든 형태는 보조사 ‘요’가 붙는 특성이 있는데, 예컨대 ‘-어요, -지요, -군요, -르게요, -르까요 ...’ 등으로 실현된다. 격식체에는 다양한 종결 표현이 있으나, 비격식체에는 매우 한정된 표현이 있을 뿐이다. 특히 해요체의 모든 형태가 ‘요’로 끝나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면서도 정감어린 대표적 형태이기 때문일 것이다. 표현 형태가 한정되어 있는 대신에 억양이나 문맥을 통해서 문장 종결의 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 예컨대, ‘먹어’라는 표현을 통해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모두를 나타낼 수 있다.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에서처럼 하나의 형태로 여러 가지 문장 종결 유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전래적으로 ‘해한다’는 말은 안 썼고 ‘반말한다’는 말은 널리 쓰여 왔으므로 ‘해체’ 대신 ‘반말체’를 채택해 쓰는 것이다. 흔히 ‘반말’은 ‘온말’, 즉 완전한 말이 아닌, ‘반밖에 안 되는 말’이라는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하는데 종래에는 이 말투가 주로 사회계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등급을 매기지 않고 어정쩡한 태도로 말하던 말투였던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오늘날 일반인이 ‘반말’이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해체에 국한하지 않고 해라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며

13) 남기삼·고영근(2004), pp.331-335.

또 종래 하층계급에 쓰던 말투라는 개념은 없어졌다.<sup>14)</sup>

### 1)해라체

해라체는 청자를 가장 낮추어 대하는 상대경어법이다. ‘-아라/어라, -다/-는다 /-니다, -느냐, -니, -자, -구나’ 등이 해라체를 담당하는 대표적 어미들이다. 나이 어린 손아랫사람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 널리 쓰인다. 대체로 가장 허물이 없는 사람에게 쓰는 등급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청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이 등급을 성립시키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17) a. 창호야, 이 참외 참 맛있다. 너도 하나 먹어라.

b. 애, 저기 좀 내다보아라. 눈이 온다.

(18) 나는 너희들의 소대장이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19) ‘한겨울의 봄 날씨’가 보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기상청은 새해부터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의 남하로 본격적인 맹추위와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7)에서는 청자가 호격어로 호칭되기도 하고, 대명사로 드러나 있기도 한데 호격어 자리에서는 호격조사 ‘아/야’를 취하고 대명사로는 ‘애’로 지칭됨을 볼 수 있다. (18)은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들을 모아 놓고 큰 목소리로 훈시하는 말투인데 그러한 상하 관계와 그러한 격식적인 자리에 이 해라체 이상의 적절한 말투는 없다. (19)는 신문기사나 전문 서적의 글이다. 해라체는 독자를 낮추는 등급이라기보다는 청자를 특정인으로 설정하지 않은, 말하자면 등급을 초월한 중립적인 등급이다. 글을 기준으로 하면 해라체가 우리말 상대경어법의 등급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등급의 지위를 누리는 셈이다.

### 2)해체

해체(반말체)는 ‘-아/어, -지, -야/-이야’ 등의 어미들에 의해 표현된다. (21)처

---

14) 이익섭 · 채완(2004), p.348.

럼 문장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끝나거나 명사구만으로 문장 구실을 하는 형태도 일종의 변칙적 해체라고 볼 수 있다. (17)과 (20)을 비교해 보면 해체는 해라체와 뚜렷한 등급의 차이를 찾기 어려운, 해라체와 거의 동등한 등급의 높임법이다.

(20) a. 창호야, 이 참외 참 맛있다. 너도 하나 먹어.

b. 애, 저기 좀 내다봐. 눈이 와.

(21) 뭐라고? 배가 아프다고?/ 몇 시에? 어디서?/ 나는 냉면.

그러나 (18)을 같은 상황에서 해체로 바꾸기는 어렵다. 만일 “나는 너희들의 소대장이야.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와 같은 해체로 말한다면 상관으로서의 권위를 줄이고 사적(私的)인 분위기를 만드는 효과를 낼 것이다. 해체와 해라체 두 등급의 차이가 더욱 분명한 것은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에서일 것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기도 하지만 반말을 쓰기도 한다. 아내를 허물없이 대하여 해체 (22a)까지는 쓴다 하여도 해라체(22b)를 쓸 정도로 하대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22) a.당신은 안 가겠어? / b.당신은 안 가겠니?

해체는 해라체와 많은 경우 넘나들며 쓰이지만, 엄격히 구분하면 해라체보다 한 등급 위의 높임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체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서는 쓰이지 않는데, 등급에서의 차이뿐 아니라 한쪽이 구어체 전용이라고 하는 이 차이도 해체와 해라체의 큰 차이라 해야 할 것이다.

### 3)하계체

하계체는 아랫사람이나 친구에게 쓰되 해라체나 해체보다 그 사람을 얼마큼 더 높여 대우하는 상대경어법이다. ‘-계, -네, -일세, -나, -세’ 등이 대표적인 하계체 어미들이다.

(23) a. 창호 군, 이 참외 참 맛있네. 자네도 좀 먹게.

b. 여보게, 저기 좀 내다보게. 눈이 오네.

하계체는 상대가 나이가 꽤 들어 아랫사람이지만 함부로 대하기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급이다. 따라서 교수가 학생에게, 아버지가 성년이 된 아들 친구에게, 손위 동서가 손아래 동서에게 쓰면 잘 어울린다. 그만큼 하계체는 화자의 권위가 담겨 있는 격식적 말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래에는 그 쓰임이 급격히 위축되는 추세를 보인다. 그것은 권위주의가 그만큼 퇴색하고 격식을 차리는 일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풍조가 언어에 반영된 것이라 보아 좋을 것이다.

#### 4) 하오체

하오체는 아랫사람이나 친구를 하계체보다 더 극진히 높여 대우하는 높임법이다. ‘-오, -소, -구려’ 등의 어미로 표현된다. 상대방이 나이가 들만큼 든 사람이어야 쓸 수 있음은 물론, 화자 스스로도 나이가 들어야 쓸 수 있다는 것이 그리하며 아랫사람이나 친구에게 쓰되 그 사람을 높여 대접하는 높임법이라는 점이 그러하다. 현대국어에서는 그 쓰임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이 하계체와 일치한다. 그러나 하오체가 하계체보다 상대방을 더 높여 대접한다는 차이를 가진다. (23)와 (24)의 비교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24) a. 여보, 거기 앉아 좀 폭 쉬오.

b. 김형, 참 오랜만이오. 다시 만나니 참 반갑구려.

(25) 당신은 안 가겠소?

하오체를 하계체와 비교해 보면 하계체는 해요체와는 달리 윗사람에게 쓰이는 높임법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4b)는 만일 친구나 후배에게 하였다면 자연스럽지만 후배가 선배에게 하였다면 예의에 어긋나는 말이 된다.

현대국어로 오면서 하오체가 쓰이던 자리에 해요체가 대신 자리 잡고, 하오체

는 아랫사람이나 친구를 극진히 대접하는 경어법으로 그 범위를 좁히게 된 것이다. 사실 하계체보다는 더 정중하지만 해요체보다는 덜 정중한 표현을 써야 할 영역이란 실제로 매우 좁다. 이 구분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하오체를 쓸 정도라면 아예 해요체로 써서 일을 단순화하려는 심리가 생겼을 것이다. 더욱이 하오체는 하계체와 마찬가지로 격식성이 두드러지는 말투다.

#### 5) 해요체

해요체는 하십시오체 다음으로 상대를 정중히 대하는 대표적 존대말투의 하나다. 청자가 자기보다 상위의 사람이거나, 상위에 있지는 않더라도 정중히 대우해 주어야 할 사람에게 쓰는 말투로서 오늘날 일상 대화에서 가장 폭넓게 쓰이는 등급이다. 상위의 사람에게도 아주 격식을 차리지 않을 때에는 하십시오체보다 해요체가 많이 쓰이는데다가 동위에 있거나 하위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하십시오체가 어울리지 않아 그들에게 존댓말을 쓰고자 할 때에는 해요체를 쓰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폭넓게 쓰이는 것이다.

교사가 한 학생에게 질문하거나 지시할 때는 반말을 쓰는 일이 흔하지만 교실안의 학생 전체를 청중으로 하는 말에서는 해요체를 쓴다. 이것은 교육적인 효과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고, 집단에 대해서는 더 정중히 대할 수밖에 없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풀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체(반말)와 해요체가 함께 오늘날 한국어 상대경어법의 쌍벽을 이루는 등급으로 세력이 커진 것은 형식상의 관련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6) 하십시오체

하십시오체는 상대경어법의 6등급 중 상대를 가장 정중히, 가장 공손히 대우하는 최상급의 말투이다. ‘-십시오/으십시오, -습니다/ㅁ니다, -습니까/ㅁ니까’ 등의 어미로 표현된다. 하십시오체는 자기보다 상위의 인물에게만 쓰는 말투라고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윗사람에게만 쓰인다는 점에서 동위 내지 하위의 사람에게도 쓰이는 해요체와 구별된다. 대체로 부모에게는 해요체를 많이 쓰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하십시오체로 바꾸어 말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선생님에게는 대개

하십시오체를 쓰지만 분위기에 따라서는, 또는 친숙한 사이가 되면 오히려 해요체를 더 빈번히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하십시오체는 그 격식성, 그 높은 정중함 때문에 분명히 구분된다. 가령 면접 시험을 치르는 수험자가 그 회사 사장에게 쓸 수 있는 말투는 하십시오체뿐일 것이다. 군대에서 상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그렇다.

하십시오체는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문, TV나 라디오 방송에서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뉴스나 일기예보 등에 쓰이는 것도 으레 하십시오체이다. 이것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서는 해라체가 쓰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글과 방송에서 쓰이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틀일 것이며 그것은 각각 해라체와 하십시오체가 담당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추적인 존재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sup>15)</sup>

상대 높임법에서 등급 체계 중에서 하오체에 속하는 ‘-오’와 ‘-소’는 같은 등급에 속하는가에 대한 검토로 보자면 -삽-의 이형태 ‘-오’는 내포문 외에는 상위자에 쓰이지 못하여 ‘같은 대우’의 형식으로 본다.

(26) 나는 미련 없이 가네/ 가오.

‘-소’는 평서법과 의문법에 쓰이는 ‘-소’와 명령법에 쓰이는 ‘-소’가 기원적으로 다르다. 현대 국어적인 {-삽-}의 이형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27) 여보, 영희가 시집에 \*갔으오. 갔소?/ 여보, 마음껏 드시오. 드시소.(명령)

‘해’체와 명령의 ‘해라’체 명령은 다른 것인가에 대해 명령법에 쓰이는 ‘-라’가 기원문이나 감탄문에 쓰이는 ‘-라’와 의미 속성을 같이 한다는 점을 증시하여 ‘-라’는 사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인 간접화 기능의 첨사로 본다. 따라서 ‘해’체 명령과 ‘해라’체 명령의 차이는 명제 내용에 대한 전달 가치의 차이만 있을 뿐이

---

15) 이익섭 · 채완(2004), p.348-364.

다.

‘하오’체가 ‘예사 높임’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대해 ‘-오’는 대상에 대한 높임의 기능을 결코 가지지 않는 형태이다.

등급의 기준이 ‘높임 자질’ 외에 ‘등분과 등위’나 ‘격식과 비격식’이 필연적인가에 대해서 청자 대우 등급의 기준은 우선 ‘높임 자질’이 우선되고, 다음으로 언어 형식적인 면에서 격식적인 것이나 비격식적인 것이냐가 문제이다. 특히 ‘하오’체와 ‘하네’체에서 ‘연령’이 고려되어야 한다.<sup>16)</sup>

#### 4. 객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서술의 객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28) a. 나는 그 책을 선생님께 드렸다./\*주었다.

b. 나는 그것을 선생님께 여쭙었다./\*물었다.

(28)은 주어인 ‘나’보다 존귀한 대상인 목적어 ‘아버지, 선생님’을 높인 표현으로 특수 동사 ‘드리다, 여쭙다’로 사용되었다. 또한 ‘께’라는 높임 부사격 조사를 붙이는 방법도 있다.

객체 높임법은 국어의 높임법 가운데 제일 발달되지 않은 방법이다. 중세 국어 때는 소위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습-, -습-, -줍-’이 있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존재하지 않게 되어 결국 소수의 특수 서술어에만 한정되고 ‘께’도 이런 역할을 하기는 한다.

현대 국어 -삽-의 형태별과 근문과 내포문에서의 쓰임을 검토하면서 이들 형태가 반드시 청자하고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주격 대상 인물, 주체 대상 인물, 여격 대상 인물, 목적격 대상 인물, 심지어는 속격 대상 인물과도 관련된다. 전통적으로 -삽-이 겸양이나 공손 또는 존대와 관련되는 요소라는 점에 유념하여 화

16) 이윤하(2001), pp.196, 200, 246, 269.

자와 이해 관계에 있거나 영향 관계에 있는 대상 인물과 -삽-의 기능은 ‘화자의 수혜자에 대한 겸양’으로 상정하였다. -습-의 변화를 겪어 어말 어미의 기능을 갖게 된 ‘-오’나 ‘-압’은 수행-요소의 유무에 따라 ‘-오’는 수행문의 기능을 가지나, ‘-압’은 비수행문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삽’은 절대 명령의 종결 형식 뒤에서 문미 외적 문미의 기능 정도는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삽-은 하나의 문 종결 구성의 선행 형식으로 남겨 둔 형태라 할 수 있는데 ‘-ㅁ-’, ‘-습-’ ‘-읍-’이 이에 속한다. 이들 형태가 결합된 문 종결 구성의 형식에는 ‘-ㅁ니다’, ‘-습니-’, ‘-ㅁ다-’, ‘-습디-’ 그리고 ‘-ㅁ죠’, ‘-읍죠’ 및 ‘-ㅁ시-’ 등이 있다.<sup>17)</sup>

## 5. 특수 어휘에 의한 높임법

존대나 겸양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로서는 ‘진지, 치아, 약주, 댁, 계씨(季氏), 자당, 가친, 함씨, 저, 상서, 주무시다, 계시다, 잡수시다, 돌아가시다, 드리다, 뵙다, 여쭙다...’ 등과 같이 이들에 해당되는 말 ‘밥, 이, 술, 집, 동생, 어머니, 아버지, 조카, 나, 편지, 자다, 있다, 먹다, 죽다, 주다, 만나다, 말하다...’ 등과 형태상 전혀 다른 모양을 가진 말들이 있고, 또 ‘아버님, 선생님, 귀교(貴校), 영손(令孫), 옥고(玉稿), 소생(小生), 줄고(拙稿), 비견(鄙見)...’ 등과 같이 접미사나 접두사가 붙어서 존대나 겸양을 나타내는 어휘가 된 것도 있다.

용언 ‘주무시다, 잡수시다, 계시다...’ 등은 주체를 높이는 말이며, ‘드리다, 뵙다, 모시다, 여쭙다, 되시다...’ 등은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나는 인물, 곧 객체를 높이는 말들이다. 이것은 옛말에서는 객체높임이 용언의 활용어미로 표현되는 문법범주의 한 가지였지만 현대어에서는 이렇게 특수어휘에 의해서만 표현된다. 객체존대는 본래 객체가 말하는 이보다 존귀해야 하고 동시에 주체보다 존귀해야 한다.

(29)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안경을 드렸습니다.

17) 이윤하(2001), pp.219-220.

(30) 할아버지, 형이 아버지한테 뭐가 주었습니다.

(31) 이 물건을 너희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29)는 듣는 이는 객체보다 낮은 이인 경우이고, (30)은 듣는 이가 객체보다도 존귀하다면 ‘주다’가 쓰일 수 있다. 듣는 이가 고려되어 듣는 이를 대우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31)은 듣는 이가 동시에 주어인 경우로서, 말하는 이가 객체보다 존귀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듣는 이를 대우해서 객체를 높여 말하는 것이다.

객체높임이 활용범주로서의 독립된 높임법을 이루지 못하고 몇몇 특수어휘만 남아서 그 흔적을 보여 주고 있기는 하지만, 말하는 이, 듣는 이, 주체, 객체 사이의 복잡한 준비관계에 의해 용법이 결정되는데, 객체높임말의 사용도 ‘-(으)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듣는 이를 대우해 주는 기능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sup>18)</sup>

어휘적 높임의 기존의 논의는 체언류, 용언류, 조사류의 어휘적 대우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어휘적 대우는 통사·의미론적 현상에 의한 문법적 대우와는 달리 어휘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높임 현상이며, 문장의 특정한 성분과 관련 되는 현상이 아니다.

국어에는 어휘적 높임말과 낮춤말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높임법상의 층위가 있는 어휘만 어휘적 대우의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객체 높임과 관련된 일부 동사와 주격 대상 인물 또는 주체를 높이는 일부 동사가 있다. 높임 조사에는 ‘께서’와 ‘께’가 있는데 ‘께서’는 심리적 행동주와 관련 하는 특성을 가지는 요소로 소박하게 주격 조사 ‘이/가’의 높임 조사가 아님을, ‘께’는 화자의 수혜자에 대한 겸양과 같은 의식 작용이나 심리적인 작용과 관련 되는 높임 조사라는 가정 하에 단순한 ‘에게’의 높임 조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sup>19)</sup>

---

18) 남기삼·고영근(2004), pp.338-339.

19) 이윤하(2001), p.331.

1)어휘적 대우<sup>20)</sup>

- 가. 높임말: 높임 체언, 높임 용언, 높임 조사.
- 나. 낮춤말: 낮춤 체언, 낮춤 용언.
- 다. 예삿말

2)어휘 목록

가. 체언류

- A. 예삿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밥, 아들, 딸, 나, 너, 자기, 당신, 본사(本社), 당사(當事) 등.
- B. 높임말: 아버님/춘부장(春府丈), 어머님/자당(慈堂), 횡당(萱堂), 존당(尊堂), 할아버님/ 왕존장(王尊長, 할머니, 진지, 아드님/영윤(令胤), 영애(令愛), 말쑥, 자네, 당신, 어르신/선생님, 귀하, 귀사(貴社), 본인(本人), 본관(本官), 나이/연세, 춘추, 백씨, 닥, 분부, 이/그/저분, 성/존호(尊號), 아내/내상(內相)-남의 ‘아내’, 부인(夫人), 아우/제씨(弟氏), 李氏, 伯氏, 仲氏, 삼촌/阮丈, 조카/함씨(咸氏) 영질(令姪), 병/환후(患候), 질환(疾患), 무덤/산소, 영역(塋域), 이/치아, 집사(執事), 대감, 영감, 나오리, 귀가(歸嫁), 귀교(貴校), 귀국(貴國), 화한(華翰), 존함(尊銜), 고(高), 견(見), 어마(御馬), 어제(御題), 어명(御命), 며느리/자부(子婦), 이름/휘(諱), 휘자(諱字)-돌아간 분의 이름, 본/선향(仙鄉), 관향(貫鄉), 생원/석사(碩士), 손자/영포(令抱), 영손(令孫)-남의손자, 사형(師兄) 등.
- C. 낮춤말: 애비/아범, 에미/어엄, 할아버/할아범, 할미, 가돈(家豚)/가아(家兒), 여식(女息), 미식(迷息), 폐사(弊社), 저, 소인(小人), 소생(小生), 말쑥(‘나’의 말), 소승(小僧), 복(僕), 신(臣), 비족(鄙族), 비문(卑門), 비종(鄙宗), 내자(內子), 실인(室人), 비가(鄙家), 비처(鄙處), 줄저(拙著), 줄필(拙筆), 폐교(弊校), 폐국(弊國), 폐점(弊店), 우견(愚見), 비견(鄙見), 계집, 놈, 년, 우처(愚妻), 형처(荊妻), 자식, 빈도(貧道), 시생(侍生), 사제(舍弟), 우제(愚弟), 사형(舍兄) 등.

---

20) 이윤하(2001), pp.329-330.

D. 속어 : 마누라, 주둥아리, 뱃놈, 대가리, 눈깔, 모가지, 배때기, 공갈, 큰집, 동그라미(돈).

나. 용언류

A. 높임말

(1) 주격 대상 높임: 자시다, 잡수시다, 계시다, 주무시다, 읽다/봉독(奉讀)하다, 일어나다/ 기침(起寢)하다, 헤아리다, 양찰(亮察)하다/동촉(洞燭)하다, 듣시다, 보다/하감(下鑑)하다, 취침(就寢), 분부(分付)하다, 거동(舉動)하다, 출어(出御)하다, 말씀하다 등.

(2) 여격 대상 높임: 상납(上納)하다, 진상(進上)하다, 올리다, 드리다, 바치다, 봉헌(奉獻)하다, 묻다/품(稟)하다, 여쭙다, 아뢰다, 사뢰다, 상달(上達)하다, 하달(下達)하다, 상신(上申)하다, 봉축(奉祝)하다, 기망(祈望)하다 등.

(3) 목적격 대상 높임: 배알(拜謁)하다, 배행(陪行)하다, 수배(隨陪)하다, 모시다, 뵈다, 받들다, 알견(謁見)하다 등.

B. 낮춤말: 먹다/치먹다, 죽다/뉘지다, 눅다/자빠지다, 돌아다니다/싸지르다 등.

다. 조사류: 께서, 께.

## 6. 운용 및 책략적인 높임

운용 및 책략적인 높임은 주된 제약이나 조건이 무엇이나에 따라 운용적인 높임과 책략적인 높임으로 나뉜다. 운용적인 높임은 주로 특정한 발화 상황이나 담화 상황이 제약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제약의 성격상 구체적인 청자의 상정 여부나 담화 현장성 여부가 높임 표현에 영향을 끼치는 높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책략적인 높임은 주로 화자의 특별한 의도나 목적이 제약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성격상 대상 인물에 대한 화자의 높임 의식의 정도가 대우 표현에 영향을 끼치는 높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 운용적인 높임: 높임 현상과 실제의 담화 장면에 따른 높임 현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말하기-읽기’형식의 문어체: 발화 현장성의 속성과 실제하는 대중이란 청자의 개념이 없고, ‘읽는’ 대상 즉 추상적인 ‘독자’에 대해 쓰이는 문체이므로, 높임법 사용에 있어 글의 성격이나 전달 목적에 따라 높음 대우나 낮음 대우의 표현이 다 사용되는 특징을 지녔다.
- (2) ‘말하기-듣기’형식의 구어체: 발화 현장성의 속성을 지니며, 실제하는 대중이란 청자에 대해 쓰이는 문체이므로, ‘듣는’대상 곧 청자 대중에 대한 대우법 사용에 있어 높음 대우의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 (3) 장면에 따른 높임 현상: 명제의 내용을 전달하는 표현 가치를 중시하는 현상임을 전제하고, 발화 상황이나 담화 장면이 격식적인 자리이나 아니냐에 따라 대우법 사용이 달라지며, 담화에 참여하는 청자가 최상위자인 경우 다른 인물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높임법 사용이 달라진다.

2) 책략적인 높임: 화자의 의식이나 심리 속에 대상 인물에 대한 수혜 관계나 이해 관계 또는 영향 관계가 작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 (1) 높이는 현상: 높임 표현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현상과 규범적으로는 대우 표현이 쓰이지 말아야 할 곳에 쓰이는 현상을 말한다.
- (2) 낮추는 현상: 본래 높음 대우의 형식을 취하여야 규범적이고 온당한 표현인데, 화자의 유표적인 의도에 의해 높임 대우의 형식이 쓰이지 않는 대우 현상을 말한다. 특히 대상 인물이 화자의 자기 관련 인물이 아닐 때, 화자의 의식은 분리되어 대상 인물 청자가 발화 상황에 참여하는 경우나 그렇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인물이나 사물에 대해 높임말이 쓰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 인물 청자에는 높임말이 쓰이나 그 관련 인물이나 사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높임말이 쓰이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다.<sup>21)</sup>

## 7. 높임법과 호칭

국어의 호칭에서 나타나는 높임법 등급은 훨씬 세분된 양상을 띤다. 14단계로

---

21) 이윤하(2001), pp.378-379.

잡을 수 있다. ① 과장님, ② 김 과장님, ③ 김민호 씨, ④ 민호 씨, ⑤ 민호 형, ⑥ 김 과장, ⑦ 김 씨, ⑧ 김 형, ⑨ 김 군, ⑩ 김민호 군, ⑪ 민호 군, ⑫ 김민호, ⑬ 민호, ⑭ 민호야.

현실적으로 한국인은 더 복잡한 세계에서 살고 있다. 국어는 친족명칭도 세분화되어 있는데 ‘김 과장’이 자기 가족이거나 친척이라면 거기에 맞추어 여러 가지 호칭이 새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영어에서라면 uncle 하나로 부를 것을 ‘작은 아버지’, ‘큰아버지’, ‘당숙’ 등으로 대상에 따라 달리 부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라고 부르기도 하며, ‘외삼촌’이라고 부르기도 할 것이다.

여자가 결혼하면 시대 사람들을 하나씩 적절한 호칭으로 불러야 하는데 그것도 여간 복잡하지 않다. 우선 시부모에게도 남편이 부르는 ‘아버지, 어머니’와 구별되는 그보다 존대의 뜻이 더 섞인 ‘아버님, 어머님’을 써야 한다. 며느리는 아들이나 딸이 쓰는 ‘아빠, 엄마’는 더욱이 쓸 수 없다.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하나로 부르나, 남편의 아우는 결혼 전에는 ‘도련님’이라 부르다 결혼 후에는 ‘서방님’이라 고쳐 불러야 한다. 남편의 누나는 여자들이 쓰는 호칭인 ‘언니’가 아니라 남자들이 쓰는 호칭인 ‘형님’이라 부르며, 남편의 여동생은 결혼 전이나 후나 ‘아가씨’ 및 ‘아기씨’라 부르도록 되어 있다.

동생이 나이가 많이 들고 결혼해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나면 동생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동생’이란 호칭을 쓰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빌려 ‘누구 아버지(아빠), 누구 어머니(엄마)’라고 부른다.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이름을 남에게 가르쳐 줄 때도 이름을 바로 대지 못하고, 가령 ‘김민호’라는 이름이면 ‘김, 민 자(字), 호 자(字)’라고 하는 방식을 취한다.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대로, 직장에서는 직장에서대로, 또 거리나 상점에서 낮모르는 사람끼리는 낮모르는 사람끼리 그때그때 적절히 골라 써야 하는 호칭의 체계가 여간 복잡하지 않다.<sup>22)</sup>

## 8. 높임법의 결정 요인

---

22) 이익섭외,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1997, pp.238~249.

나이는 높임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나이와 직위가 상반되어 갈등을 일으킬 때에도 2~3세까지는 무시될 수 있는 듯하다. 한 보고서는 군대 생활에서 상관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부하를 대할 때 그 부하의 나이가 대체로 4세 차이가 나면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한다(김주관 1989).

나이와 관련되면서도 나이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학교의 선후배 관계도 높임법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선후배 관계가 그 중에서도 엄격한 위계질서를 지킨다.

그러나 나이 차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의 절대적 나이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서로 나이를 먹으면 호칭이 달라지고 반말을 쓰던 사람(가령 오빠나 형에게)이 존댓말을 쓰기도 하며, 또 하계체나 하오체는 화자 및 청자가 나이가 든 후에야 구사할 수 있었다. 절대적 나이는 대체로 결혼하는 나이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친척 사이에서는 향렬(行列)이 중요한 몫을 한다. 향렬은 나이도 뛰어넘어 상대가 상위 향렬이라면 자기보다 10세 이상 어려도, 상대가 아주 어릴 때가 아니라면 반말을 쓸 수 없으며, 이름을 못 부르고 친족명칭을 써야 한다. 촌수와 향렬의 개념이 엄격하기 때문에 친척들 사이의 높임법 사용도 자연스럽게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향렬은 권세 쪽으로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촌수는 유대 쪽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성별(sex)도 얼마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개 아버지에게보다 어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보다 할머니에게 덜 정중한 말투를 쓴다. 아버지, 할아버지에게는 늘은 아니지만 하십시오체를 쓰는 일이 있는데, 어머니, 할머니에게는 해요체 이상의 등급을 쓰는 일은 좀처럼 없다. 이 현상은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오체를 쓸 수는 있으나 아내는 남편에게 그러지 못하고 그보다 한 등급 높은 해요체를 쓴다. 이것은 한국인의 삶을 오랫동안 지배해 온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대가 높임법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서로 존댓말을 하다가 친해

지면 반말하는 사이로 바뀌는 것이다. 이를 ‘말을 놓는다’고도 하고 ‘너나하는 사이가 된다’고도 하는데 유대가 그러한 등급 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대의 영향력이 역(逆)으로 미치는 수가 있다. 친하던 사이가 서로 경원한 사이가 되면 반말을 하던 것을 존댓말로 바꾸는 것이 그것이다. 형제가 서로 짐작은 나이가 되면 호칭을 상위 등급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그 일례다.<sup>23)</sup>

친척 사이의 항렬은 높임법 사용에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가족 구조가 핵가족 중심으로 바뀌다보니, 직계 가족 중심으로 친밀도가 높아져 높임 표현 또한 약화되었다.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음에도 사용해야 할 기회가 많지 않아 의식조차 약화되어 간다. 그래서 정작 실생활에서 높임 표현을 요구하는 상황에 접하게 될 때 제대로 표현을 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높임법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 문제가 제기 된다. 높임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가 아니면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

23) 이익섭외(1997), pp.278~283.

### Ⅲ. 고등학교 국어생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 1. 국어생활 교과서의 교육과정 해설<sup>24)</sup>

##### 1) 성격

국어 생활 과목의 성격은 ‘실제적 생활로서의 국어’를 익히는 과목이다. 실제적 생활이란 물질 차원과 정신적 차원 모두에 관여되는 것인데, 전자가 ‘실용적인 생활의 국어 사용’이라면 후자는 ‘문화·이념적인 생활의 국어 사용’이라 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는 이들 양자를 가능한 한 통합해서 다루도록 한다. 그래야만 ‘국어 생활의 전체성’이 교육적으로(교육 과정 내용으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 과목에서는 ‘국어’를 학문적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를 실제 생활에서 잘 부리는 경험 쌓기로 접근하여 국어 생활의 유의미성을 살아 있는 경험으로 체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 과목은 국어 현상을 바탕[질료]으로 한 국어의 규범적·사회적·문화적 작용태를 학습자가 주인이 되어서 경험하게 하는 과목이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주인이 되어 봄직한 국어 현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조직해 주느냐가 이 과목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①국어 생활과 사고, ② 국어 생활과 사회·문화, ③ 국어 생활과 문학 등을 폭넓게 이해하고, 자기 나름의 철학과 안목으로 국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국어 규범에 대한 학습이 지식의 학습이 아니라 실천성의 강화에 놓여 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국어 생활’ 과목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격이다.

##### 2) 목표

‘국어’ 과목은 학생들을 정확하고, 해석적이며,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 사

---

24)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교육 인적 자원부, 2001, pp91~107 부분 발췌.

용자로 만들기 위한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길러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어’ 과목에서 학습한 이러한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구체적인 국어 생활의 장면에서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국어 생활’ 과목의 목표이다.

국어 사용의 일반적인 소양과 일상 속에서의 국어 문화를 창조하는 능력을 길러 능동적인 국어 생활을 실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국어와 우리 삶의 관계를 알고 국어 사용의 실천적 가치를 이해한다.

나. 국어의 규범을 알고 국어 생활에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한다.

다. 국어 사용 문화를 이해하고 국어 생활에 발전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한다.

라. 국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를 국어 생활에 능동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한다.

마. 국어 생활을 성찰하고 이를 토대로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 3) 내용

‘국어 생활’ 과목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그것을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다. ‘국어 생활’ 과목의 내용 항목들은 그 범주를 크게 인지적 내용과 정의적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의 영역 범주는 ‘(1) 국어와 우리의 삶, (2) 국어 생활의 실천, (3) 국어 생활과 국어 정신’에 대응된다. 대영역의 구분 자체가 ‘인식, 실천적 능력, 태도’로 되어 있다. 세 개의 영역은 서로의 비중이 동일하지 않다. ‘국어 생활’은 일상적인 언어적 문제 상황에서 실천적 능력을 강조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세 개의 영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 국어 생활의 실천’이다. 이 부분의 내용은 ‘(가) 바른 국어 생활, (나) 문화 속의 국어 생활, (다) 창조적인 국어 생활’로 체계화하였다.

영역별 내용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2) 국어 생활의 실천’에서 ‘(가) 바른 국어 생활’ 영역 내용으로 ‘국어 규범 지식’과 ‘국어 규범 지식’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나) 문화 속의 국어 생활’ 영역은 ‘국어 생활과 전통 문화, 국어 생활과 생활 문화, 국어와 매체 환경’의 내용으로 분류된다. 여기에서 ‘국어 생활과 생활 문화’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 ① 언어 예절을 알고 국어 생활에 국어 생활에 적용한다.

- ② 각종 개인적, 사회적 의식(儀式)과 관련한 의사 표현 양식을 익히고 국어 생활에 창조적으로 적용한다.
- ③ 지칭어와 호칭어를 알고 국어 생활에 적용한다.
- ④ 단위어를 알고 국어 생활에 적용한다.
- ⑤ 다양한 생활 장면에서 만나는 문체 상황을 언어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 2. 국어 생활 교과서 분석

### 1) 국어 생활 교과서 분석

<표 1> 언어 예절과 관련된 ‘국어 생활’ 교과서 단원 및 내용 체계

출판사/저자	단원명	학습 목표	학습 내용
(1) 교학사 (김대행 외)	V. 국어 생활과 생활문화 1. 의식과 언어예절 2. 호칭어와 지칭어	1. 상황에 적절하고 예절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2. 의식적 언어, 호칭어와 지칭어, 단위어를 익혀서 활용한다.	1. 예절 바른 말의 조건 2. 호칭어와 지칭어의 기능 (가족 사이와 사회 생활에서)
(2) 두산 (노명환 외)	V. 생활 문화와 국어생활 1. 우리말의 예절 2. 지칭어·호칭어/단위어	1. 언어 예절을 알고, 이를 국어 생활에 적용한다. 2. 각종 개인적, 사회적 의식과 관련된 의사 표현 양식을 익히고, 국어 생활에 창조적으로 적용한다. 3. 지칭어와 호칭어, 단위어를 알고, 국어 생활에 적용한다.	1. 적절한 인사말의 사용 2. 대상에 따른 어휘 사용의 이해 3. 공적인 말하기와 사적인 말하기 4.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방법 조사 5. 지칭어·호칭어의 활용
(3) 대한교	3. 국어생활과 생활문화	1. 언어 예절을 알고 국어 생활에 적용한다.	1. 언어 예절의 필요성-일상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과 서 (주) (한 철 우 외)	(1)언어예절 (2) 의식어 (3)호칭어와 지칭어	2. 각종 의식어를 익히고 국어 생활에 창조적으로 적용한다. 3. 지칭어와 호칭어를 알고 국어 생활에 적용한다.	할 언어 예절 2. 의식어의 기능- 개인적·사회적 의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사말 3. 가족 관계에 따른 호칭어와 지칭어 4. 직장과 사회에서 사용하는 호칭어와 지칭어
(4) 법문사 (임 흥 빈 외)	V. 국어 생활과 생활문화 1. 언어 예절과 국어생활 2. 일상 생활과 국어	1. 언어 예절을 알고 국어 생활에 적용한다. 2. 각종 개인적, 사회적 의식과 관련한 의사 표현 양식을 익히고, 국어 생활에 창조적으로 적용한다. 3. 지칭어와 호칭어를 알고 국어 생활에 적용한다.	1.언어 예절의 기본 알기 2. 높임법의 종류알기-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 압존법 3.전화, 편지 예절 알기 4.가족 관계의 지칭어, 호칭어 알기 5. 가족 관계 이외의 지칭어, 호칭어 알기
(5) (주)블랙박스 (한 계 전 외)	6. 언어 예절과 생활문화 6.1 언어 예절은 왜 필요한가? 6.2 의식에 따른 알맞은 표현은? 6.3 호칭어와 지칭어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1. 언어 예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바르게 표현할 수 있다. 2. 의식을 고려하여 예의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다. 3. 호칭어와 지칭어의 의미를 알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1. 언어 예절의 필요성 알기 ·웃어른께 언어 예절에 맞게 말하기 ·언어 예절을 지킬 때 고려해야 할 요소 2. 의식의 뜻과 의식에 따라 적절한 표현이 있음을 알기 3. 호칭어와 지칭어를 구분해서 써야 함을 알기
(6) 지학사 (심 재 기 외)	2. 국어 생활과 생활 문화 (1)언어예절 (2)각종 의식과 국어표현	1. 언어 예절을 알고 국어 생활에 적용한다. 2. 각종 개인적, 사회적 의식과 관련한 의사표현 양식을 익히고 국어	1. 언어 예절의 중요성과 각각의 상황에 맞는 언어 예절을 이해한다. 2. 개인적, 사회적 의식의 종류와 적절한 표현 양식을 이

	(3)호칭어와 지칭어	생활에 창조적으로 적용한다. 3. 호칭어와 지칭어를 알고 국어 생활에 적용한다.	해한다. 3.호칭어와 지칭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가정과 사회에서 쓰이는 호칭어와 지칭어를 알아본다.
(7)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조남현 외)	II. 바른 국어 생활 3. 바른 높임 표현	2. 높임 표현 사용의 원리를 알고 일상생활에서 바른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	1. ‘있으시다:계시다. 아프시다:편찮으시다’ 용법 비교 2. 높임 표현의 느낌 차이 3. 바른 높임법 사용 4. 상황에 알맞은 높임법 사용
(8) (주)천재교육 (김홍규 외)	2. 국어 생활과 생활 문화  (1)바람직한 언어예절 (2)여러 가지 의식과 관련된 의사 표현 (3)지칭어·호칭어·단위어	1. 다양한 상황에서의 언어 예절을 바르게 지킬 수 있다. 3. 여러 가지 의식과 관련된 의사 표현을 바르게 할 수 있다. 4. 올바른 지칭어·호칭어를 사용할 수 있다.	1.언어 예절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됨을 알기 2. 언어 예절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는 원동력이 됨 3.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언어 예절 형성 4. 국어 생활의 사회·문화적 양식은 각종 의식과 관련된 의사 표현에 나타난다. 5. 정확한 지칭어와 호칭어/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지칭어·호칭어를 정확하게 사용
(9) (주)한국교육미디어 (김광해 외)	5. 국어 생활과 예절 (1)언어 예절의 중요성 (2)격식을 갖춘 언어예절 (3)지칭어, 호칭어,	1. 언어 예절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언어 생활에 적용한다. 2. 격식을 갖춘 언어 표현을 찾아 이를 창조적으로 적용한다. 3. 지칭어, 호칭어, 단	1. 높임 표현 알기 2. 편지와 전화 통화 시의 예절 알아보기 3. 상황에 맞는 역할 놀이 해 보기 4. 공식적인 언어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기

단위어	위어의 쓰임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적절하게 쓴다.	5. 자기 소개하기 6. 잘못된 부분 찾아 바르게 고치기 7. 지칭어, 호칭어, 단위어의 쓰임 알기
-----	-----------------------------	---

위의 <표 1>은 언어 예절을 담고 있는 총 9권의 고등학교 국어 생활 교과서의 단원 및 내용 체계이다. 이는 제 7차 교육과정 해설서의 설명대로 대부분의 교과서는 대단원과 소단원을 잡고 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면 언어 예절과 의식과 관련한 의사 표현을 같이 묶는 경우(교학사, 두산, 법문사 교과서)와 언어 예절과 의식과 관련한 표현을 각각 소단원으로 나눈 경우(대한교과서, 블랙박스, 지학사, 천재교육, 한국미디어교육 교과서)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25)</sup>

그리고 이 두 경우에 속하지 않는 ‘중앙교육’ 교과서는 교육과정 해설서의 영역별 내용과 다른 체계로 대단원 ‘Ⅱ.바른 국어 생활’, 소단원 ‘3. 바른 높임 표현’으로 높임법의 중심 내용을 담고 있어 나머지 8권의 국어 생활 교과서와는 차별된 분류와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전 장에 살펴보았던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sup>26)</sup>

- 25) 1. 교학사 교과서 : V. 국어 생활과 생활 문화  
 1. 의식과 언어 예절  
 2. 호칭어와 지칭어  
 3. 대한교과서 : 3. 국어 생활과 생활 문화  
 (1) 언어 예절  
 (2) 의식어  
 (3) 호칭어와 지칭어

26) ‘국어 생활’의 내용 체계

영역	내용
(1) 국어와 우리 삶	(가) 국어 생활과 사고 (나) 국어 생활과 사회·문화 (다) 국어 생활과 문학
(2) 국어 생활의 실천	(가) 바른 국어 생활 (나) 문화 속의 국어 생활 (다) 창조적인 국어 생활
(3) 국어 생활과 국어 정신	(가) 국어 생활에 대한 성찰 (나)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

나머지 교과서는 높임법 이론에 대한 단원이 없다. 다만 ‘법문사’ 교과서와 ‘한국교육미디어’ 교과서에서 학습 내용 중에 높임법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법문사’ 교과서는 중단원 ‘1. 언어 예절과 국어 생활’에서 학습내용의 일부로 높임법의 종류가 제시되어 있고 ‘한국교육미디어’ 교과서는 소단원 ‘(1)언어 예절의 중요성’에서 높임법과 낮춤말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어 높임말과 낮춤말은 어떤 등급을 선택하느냐, 어떤 어휘를 골라 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두산, 블랙박스’ 교과서에서 높임법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 수준이다. ‘두산’ 교과서에서는 학습내용 전에 ‘바탕글의 이해’부분에서 김하수의 ‘존대법의 사용의 문제점’이란 짧은 글이 실려 있다. 간단하게 점검하는 수준으로 적절한 존대법 사용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블랙박스’ 교과서에서는 ‘생각해보기’ 부분에서 정희정이 쓴 글을 통해 높임법의 어려움과 높임법의 표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나머지 교과서 ‘교학사, 대한교과서, 지학사’는 높임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의 제시 없이 언어 예절과 의식에 따른 언어 표현, 지칭어·호칭어·단위어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중앙교육, 법문사, 한국미디어교육, 두산, 블랙박스’ 교과서를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 2) ‘국어 생활’교과서의 세부적 분석

### (1) 중앙교육- 조남현 외

#### ① 단원의 학습 지도 계획

#### <표 2> ‘중앙교육’ 교과서 단원 학습 계획

---

‘중앙교육’ 교과서는 위의 내용 중에서 ‘(2) 국어 생활의 실천, (가) 바른 국어 생활’의 내용 체계에 속하며 나머지 교과서는 ‘(2) 국어 생활의 실천, (나) 문화 속의 국어 생활’의 내용 체계에 속하여 단원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국어 생활의 교과에서 언어 예절과 높임법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연관성 있게 다루고자 한다.

대단원/소단원	주요 내용	학습 활동	학습 방법
II. 바른 국어 생활 / 3. 바른 높임 표현	학습의 주안점	· 국어 생활에서 높임 표현의 중요성을 안다. · 높임 표현 사용의 원리를 익힌다. · 일상 생활에서 바른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	
	[도입]	[내용학습] 높임법의 사용의 필요성 [수행과제] 여러 상황에서 높임 표현이 사용되는 양상을 관찰하고 문제점을 정리하기	조사 토의
	(1) 높임의 기준	[내용학습] 나이, 친족 관계, 사회적 지위, 성별 등의 높임 표현 사용의 기준 알기 [수행과제] 높임 표현 사용의 기준이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기	논술
	(2) 높임법의 종류	[내용학습]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의 개념과 표현 방식 알기 [수행과제] '요'를 사용하여 높임 표현을 할 때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바른 높임 표현을 익히기	탐구
	(3) 높임을 표현하는 어휘	[내용학습] 높임을 표현하는 어휘 [수행과제] 일상 생활에서 높임을 표현하는 어휘를 바르게 사용하기	적용
	(4) 그 밖의 높임법 사용 원리	[내용학습] 압존법의 개념 [수행과제] 지나친 높임 표현의 문제점	적용
	기본 활동	1. '있으시다:계시다, 아프시다:편찮으시다' 용법 비교 2. 높임 표현의 느낌 차이 3. 바른 높임법 사용 4. 상황에 알맞은 높임법 사용	조사 탐구
	심화 활동	1. 높임말 구사와 평등한 인간 관계의 상관성 2. 시대의 변화에 따른 높임법 사용의 변화	토론 탐구

바른 국어 생활은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상황과 실례를 통해 우리의 국어 생활을 반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규범에 맞는 국어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단원 '3. 바른 높임 표현'에서는 다양한 높임 표현이 국어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이며 언어 예절의 핵심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부딪히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정확하고 바른 높임 표현들을 익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7)</sup>

② [수행과제]분석

[도입] 수행과제- 모듬별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다음 상황을 녹화하여 글로 옮긴 후,

이것을 바탕으로 높임 표현 사용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자.

- (1)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
- (2) 집에서 어머니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상황
- (3) 시부모, 시누이, 며느리가 대화를 나누는 상황(또는 장인, 장모, 처남, 사위가 대화를 나누는 상황)
- (4) 직장에서 부장, 과장, 신입 사원이 함께 이야기하는 상황

[(1) 높임의 기준]수행과제- 다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 편의 글로 써 보자.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해라체’를 사용하지만 처부모는 사위에게 ‘하계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 예절이다. 그런데 요즘 점점 사위에게도 ‘해라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예의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풍조가 확산되다 보니 생겨난 현상’이라는 견해와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현상’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2) 높임법의 종류]수행과제-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신청서를 써 뒀더니 담당 직원이 ‘여기랑 여기가 틀렸으니 다시 써요.’하며 신청서를 돌려 주더군요. 좀 더 정중하고 친절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걸까요?”  
“요즘은 은행이나 관공서의 직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담당 창구에 물어 보면 ‘저리로 가 봐요.’하고 대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기분이 언짢아요.”

[(3) 높임을 표현하는 어휘]수행과제-다음 글에서 높임 표현의 어휘가 적절하게 쓰이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고쳐 보자.

오늘 길에서 우연히 친구 엄마를 만났다.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더니, 다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하셨다. 짐을 들어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향에

27) 조남현 외, 『고등학교 국어생활』 교사용지도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1, p.76.

계신 아버지 생각을 했다. 나이도 많으신데 여전히 힘든 농사일로 바쁘신 아버지, 그동안 공부가 힘들다는 핑계로 전화도 자주 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었다. 아무리 바빠도 이번 일요일엔 꼭 고향에 내려가야겠다.

[(4)그 밖의 높임법 사용 원리]수행과제- 다음 문장에서 높임 표현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 이를 바탕으로 높임 표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자.

- (1) 이번 주 금요일 아침 10시에 사장님실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 (2) 따님이 이제 다섯 살이시라고요. 따님 이름도 참 예쁘시네요.
- (3) 부모님께서 동생 집에 들르셨다가 가시겠다고 하셔서 잠깐 들르기로 했다.
- (4) 주부님들의 고민을 말씀해 드립시다.

[도입]부분에서 영상 매체를 통하여 높임 표현에 대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흥미와 동기유발을 이끌 수 있다. 실제적인 여러 상황에 대한 높임 표현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앞으로 학습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결혼, 취업)이므로,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고 흥미 있게 다가 설 수 있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1)높임법의 기준’ 수행과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남녀 성차에 대한 면들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반말을 해도 상관없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존댓말을 해야 하는 경우와도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높임 등급 중 ‘하계체’의 사용의 의미를 지도할 수 있게 하였다. ‘(2) 높임의 종류’ 수행과제는 학습자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언어 예절인 높임 표현을 아무리 강조해도 잘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지만, 자신의 경험 즉 낮은 사람이 “학생! 이름이 뭐야?”라고 묻는다면 기분이 나쁠 것이다. 이런 경험들을 떠올리며 학습 상황과 연계시켜서 활동한다면 높임 예절에 관한 지도에 대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법문사- 임흥빈 외

① 단원의 학습 지도 계획

<표 3> ‘법문사’ 교과서 단원 학습 계획

대단원명	중단원명	소단원명	교수학습내용
V. 국어 생활과	1. 언어 예절과	준비학습	· 병문안을 갔을 때 필요한 표현 알아보기
		일상적인 언어	· 언어 예절의 기본 알기

생활 문화	국어 생활	예절	· 높임법의 종류 알기-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압존법 · 전화, 편지 예절 알기
		개인적, 사회적 의식과 의사 표현	· 개인적, 사회적 의식에 적절한 표현 표현을 알고 사용하기
		다 가지 (기본 활동)	1. 높임법이 사용된 표현 찾기 2. 높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낸다. 3. 잘못된 대화 내용 올바르게 고치기 4. 부부 사인의 대화를 언어 예절에 맞게 고치기 5. 부부와 같은 아주 가까운 사이에도 언어 예절이 필요한 까닭
	2. 일상 생활과 국어	준비학습	· 단위어를 이용하여 시장에서 물건 세어보기
		지칭어, 호칭어와 국어 생활	· 지칭어, 호칭어의 의미 알기 · 가족 관계의 지칭어, 호칭어 알기 · 가족 관계 이외의 지칭어, 호칭어 알기
		단위어와 국어 생활	· 여러 가지 단위어를 익히고 사용해 보기
		다 지기 (기본 활동)	1. 시에서 지칭어를 가려보기 2. 시에 쓰인 지칭어로 가리키는 인물과 시인과의 관계 도표로 나타내기 3. 조리법에 쓰인 단위어 알기

높임법과 관련된 단원은 ‘일상적인 언어 예절’의 소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틀리기 쉬운 높임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높임법에 있어서 어휘, 억양, 상대에의 배려 등도 중요한 요소이다.<sup>28)</sup>

② 높임법과 관련된 활동 문제 분석

활동 2- 같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다음을 조사하여 보자.  
1) ‘가’의 학생들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서로 존댓말을 하는지 알아

28) 임흥빈 외, 『고등학교 국어생활』-교사용 지도서, 법문사. 2001, pp.198-199.

- 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존댓말을 하는 학생
- 나. 아버지에게만 존댓말을 하는 학생
- 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존댓말을 하지 않는 학생

보자.

- 2) '나'와 '다'의 친구들이 존댓말을 하지 않는 까닭을 알아보자.
- 3) 존댓말과 반말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활동 3- 다음을 읽고 주어진 활동을 해 보자.

- 가. 수민아, 이번 운동회에서 우리 반이 우승하려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 나. 김수민 군, 이번 운동회에서 우리 반이 우승하기 위해 준비할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친구 사이인 동일한 인물에 대한 표현이 '가'와 '나'처럼 달라지는 이유에 대하여 말해 보자.
- 2) 이와 같이 동일한 인물에 대하여 높이는 표현의 선택이 달라지는 경우를 정리하여보자.

활동 4- 주어진 열쇠를 이용하여 아래의 빈칸을 채워 보자. (가로 세로 풀기)

<가로 열쇠> ㉠ '밥'의 높임말 ㉡ "할아버님께서 돈이 많이 있다."에서 '있다'의 높임말 ㉢ '남의 아들'을 높여 이르는 말. ㉣ "어머님이 수술한 자리가 아프대."에서 '아프다'의 높임말. ㉤ '남의 아버지'를 높이는 말. ㉥ '떡다'의 높임말.

<세로 열쇠> ㉦ '자다'의 높임말. ㉧ '있다'의 높임말. 주어가 사람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다. ㉨ '병으로 몸이 괴로움'을 높여 이르는 말. ㉩ 어른의 '나이'의 높임말.

다지기 1. 다음 상황을 보고 주어진 활동을 해 보자.

- 만화장면: \* 수민아, 할머니께서 지금 너더러 오시래/ 알았어. 누나.  
 \* 할머니, 저를 찾으셨어요?/ 아니 네 아비.  
 \* 아버님은 회사에 불일이 계셔서 나가셨는데요./ 오냐.  
 \* 어머니, 그이는 늦으신다고 조금 전에 전화하셨어요./ 많이 늦는다디?

- 1) 위의 각 대화에서 높임법이 사용된 표현을 찾아보자.
- 2) 그 표현들은 각각 누구를 높이기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 3) 말하는 이의 의도에 적합한 것으로 각각의 대화 내용을 바로잡아 보자.

'활동 2'는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활동이다. 개인 활동인지, 모둠 별 활동인지 명확하지 않다. 조사 활동으로 보아 모둠 별 활동으로 짐작된다. 이 활동을 통해 실제 가정에서의 높임말 쓰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

이며, 존댓말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활동을 통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이 가정에서 높임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존댓말의 선택 요인 가운데 친밀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활동 2’의 조사를 하기 위한 측면에서 체계적인 조사표(체크리스트, 중요도평정)로 하면 더 쉽고 정확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도한다.

‘활동 3’을 통해서 공식적인 자리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높임 표현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을 쓰면서 존대하는 것도 화자가 주체를 평가할 때 주위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다른 한 실례가 된다.

‘활동 4’은 ‘가로세로풀기’의 게임 활동을 통해서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높임법 어휘의 지도를 학습자가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지기 1’의 활동은 만화 장면에서 제시된 대화 내용이다. 일상 생활에서 높임법이 잘못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정확한 높임법의 쓰임을 알게 하도록 했다.

(3) 한국교육미디어- 김광해 외

① 단원의 학습 지도 계획

<표 4> ‘한국교육미디어’ 교과서 단원 학습 계획

구 분	교수학습내용
단원의 길잡이	· 단원 도입 및 준비 학습
(1) 언어 예절의 중요성	· 높임 표현 알기 · 편지와 전화 통화 시의 예절 알아보기 · 상황에 맞는 역할 놀이 해 보기
(2) 격식을 갖춘 언어 예절	· 공식적인 언어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기 · 자기 소개하기 · 학교 축제에 초대하는 영상 편지 쓰기 · 잘못된 부분 찾아 바르게 고치기
(3) 지칭어,	· 지칭어, 호칭어, 단위어의 쓰임 알기

호칭어, 단위어		
마무리하기	되짚어보기 <평가하기>	(1) 언어 예절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언어 생활에 적용하는가? (2) 격식을 갖춘 언어 표현을 찾아 이를 창조적으로 적용하는가? (3) 지칭어, 호칭어, 단위어의 쓰임을 알고, 일상 생활에서 적절히 쓰는가?
	다지기	1. 언어 예절에 대해 생각해 보기 (1) 언어 예절 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생각해 보기 (2) 언어 예절에 관계 없이 위 글이 감동을 주는 이유 알기
	한 걸음 더	1. 전화 예절에 유의하며 글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대화하는 사람의 관계 알기 (2) 두 사람의 대화 태도 평가해 보기 2. 호칭에 대해 생각해 보기

소단원 ‘(1)언어 예절의 중요성’에서는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높임말과 낮춤말, 품위 있는 말, 말의 강약과 고저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sup>29)</sup>

## ② 높임법과 관련된 활동 문제 분석

생각하기 2. 다음 예들을 언어 예절에 맞게 고쳐 보자.

- 선생님, 이거 먹어 보세요.
- 아버지께서 신문을 읽으시고 계시다.
- 선생님, 저희 나라도 이제는 좋아졌지요?

스스로하기 1. 높임 표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며 대화 내용을 듣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선생님: 모임 시작하기 전에 출석 점검부터 해 보자. 3학년부터 부르지. 김준오!

29) 김광해 외, 『고등학교 생활국어』 교사용 지도서, (주)한국교육미디어, 2001, p.163.

김준오: 네.  
 선생님: 송경수!  
 학생들: …….  
 선생님: 송경수! 송경수 없나?  
 이민석: 선생님! 송 선배님이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그래? 왜? 무슨 일이 있나?  
 서영미: 집에 일이 있으시다고 하던데요?  
 선생님: 그래? 알았다.  
 김준오: 선생님! 경수가 오늘 모임에 빠지면 내신에 지장 있는 거 아니냐고 선생님께 물어 봐 달라던데요?  
 선생님: 그런 건 없다. 대신 다음부터는 동아리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하라고 전해라.

(1) 위의 대화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높임 표현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해 보자.

(2) (1)의 잘못된 표현을 바르게 고쳐 써 보자.

함께하기- (역할 놀이) 친구들과 함께 주어진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동 요령에 따라 역할 놀이를 해 보고, 모둠별로 다음 사항을 서로 평가해 보자.

- [활동 요령] 1. 먼저 상황에 맞는 배역을 정한다.  
 2. 상황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을 구성한다.  
 3. 자신이 맡은 배역과 내용을 충분히 연습하여 표현한다.

‘생각하기 2’는 첫 번째 문장은 특수 어휘를 이용한 높임말로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에 어긋난 표현이다. 두 번째 문장은 주체인 아버지를 높여야 하는데 이중 높임이 되어 어색하다. 이처럼 대화를 통하여 언어 예절에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점검하는 활동이다.

‘스스로하기 1’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이다. 학교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하기 2’와 별 다른 차이가 없는 활동이다. 대화 안에서 잘못된 높임 표현을 찾고 그것을 바르게 고치는 활동이 계속 이어진다면 자칫 학생들에게 딱딱하고 지루한 수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함께하기 (역학 놀이)’는 모둠별로 이루어진 활동이다. 몇 개의 상황을 제시하여, 상황에 맞는 대화를 구성하고 배역을 정한다. 배역에 맞는 역할을 표현하

여 학생 스스로 언어 예절과 높임 표현을 내면화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진행되도록 사전에 유의 사항에 대해 전달하도록 한다.

(4) 두산- 노명환 외.

① 활동문제 분석

목표학습 2. 다음은 우리가 주의에서 볼 수 있는 말다툼의 모습이다. 이를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자.

갑: 언제 보았다고 반말이요?

을: 아니 누구한테 반말이야?

갑: 너는 아비 어미도 없느냐? 누구한테 반말이나, 반말이…….

을: 너라니? 누구한테 너라고 그래? 내가 네 아들이라도 된다더냐?

(1) 반말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반말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말해 보자.

(2) 예절을 지킨다는 것이 사회 속에서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해 보자.

3. 다음 대화를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가) 남편: 여보, 나 오늘 늦을 거야.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아이들과 먼저 저녁 먹어.

아내: 응, 알았어. 차 조심하구.

아들: 아빠, 잘 갔다 와.

(나) 남편: 여보,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소. 오늘 회사에서 부서별 회식이 있다고 하니, 아마 늦어서야 집에 올 것 같소. 아이들과 먼저 저녁 식사해요.

아내: 그럴게요. 술 너무 많이 들지 마세요. 그리고 일찍 오세요.

아들: 아버지,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1) (가)와 (나)의 각각의 대화에서 느낄 수 있는 가족 간의 관계를 말해 보자.

(2) (가)와 (나)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어떤 사람됨을 형성하게 되겠는지 말해 보자.

4. (가)와 (나)는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듣는 이에게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선생님이 어떤 느낌을 받을지 말해 보자.

- (가) 선생님, 우리 엄마가 오늘 일이 있다고 나보고 4교시 끝나고 조퇴하라고 했습니다.
- (나) 선생님, 저희 어머님께서 오늘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제게 오늘 4교시 끝나고 제가 조퇴해도 될는지 선생님께 여쭙 보라고 하셨습니다.

활동 2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말다툼을 하는 현상을 제시하여 언어 예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다. 나의 경우 이런 경우는 없었는지 각성하는 시간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3은 (가)와 (나)의 대화 형식의 차이를 구별하여 가정에서의 대화 예절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도록 한다. 4는 학생이 선생님께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이다. 듣는 이로 하여금 느낌은 다를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었는지 깨닫게 한다. 활동을 통해서 나의 언어 생활, 가정의 언어 생활, 주변의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언어 예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한다.

(5) ‘블랙박스’ 교과서- 한계전 외

①활동문제 분석

1. 위 글을 참조하여 다음의 잘못된 표현을 바르게 고쳐 보자.

[상황] 웃어른께 말씀드릴 때

잘못된 표현	어색한 이유	바른표현
• 그만갑시다.	( )	( )
• 식사하세요.	( )	( )
• 아버지한테 야단맞았어요.	( )	( )

2. 글쓴이는 언어 예절을 지킬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크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이것에 어긋난 예를 위 글에서 찾아 넣어 보자.

언어 예절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언어 예절에 어긋난 예
• 상대방에 대한 고려	• ( )
• 상황에 대한 고려	• ( )
• 적절한 어휘 선택	• ( )
• 적극적인 표현	• ( )

(함께해보기) 다음 상황을 가정하여 조를 짜서 역할극을 해 보자.

1. 다음 상황에서 ‘아버지의 아픈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적절히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역할극을 통해 알아보자. 그리고 서로 역할을 바꾸어 입장의 변화에 따라 언어 예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아보자.

[상황]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 역할 1/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 역할 2/ 이에 대해 선생님께 말씀 드리는 학생
- 역할 3/ 이에 대해 친구들에게 말하는 학생

2. 다음은 병문안을 가서 위로의 말을 하는 상황이다. 역할극을 통해 예의에 맞게 적절히 말해 보자. 그리고 서로 역할을 바꾸어 입장이 바뀔 때 따라 언어 예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아보자.

[상황] 병문안을 갔을 때

- 역할 1/ 환자: 친구, 방문객: 친구
- 역할 2/ 환자: 선생님, 방문객: 학부모
- 역할 3/ 환자: 친구 아버지, 방문객: 학생

교과서 본문 중에 정희정의 ‘생각해보기’ 글을 읽고 활동 1, 2를 한다. 활동 1은 잘못된 표현이 왜 잘 못 되었는가의 이유를 알고 바른 표현을 적도록 했으며, 활동 2는 언어 예절에 어긋난 예들이 언어 예절에서 어떤 요소인지를 연결시키는 활동이다.

이 활동들은 본문 내용에 한정해서 잘못된 표현과 어긋난 언어 예절을 찾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활동을 통해서 높임법에 대한 이론 학습은 물론이고 학습자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경험을 유추하고 높임 표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까지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함께해보기’ 활동은 모듈별로 편성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배역을 정해 직접 표현을 해 보는 활동이다. 하지만 역할극을 하

기에는 너무 짧은 내용으로 한 마디씩 주고받는 대화이다. 상황을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구성 속에서 역할극이 이루어 질 때 긴장감과 흥미를 더해 주고 조원들끼리 협력할 수 있다.

이것으로 높임법과 관련된 국어 생활 교과서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높임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을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이는 국어 생활 교과서의 성격이 ‘실제적 생활로서의 국어’를 익히는 과목으로 한 국어의 규범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학습자가 주인이 되어서 경험하게 하는 과목이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주인이 되어서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기본적인 이론 지식이 필요하다. 곧 원리와 본질을 연결하여 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자세한 이론을 제시하기 보다는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배경 지식을 간단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어 생활’ 교과서의 단원에 대한 체계는 높임법 교육의 내용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것은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에 대한 접근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앞에서 살펴 본 각주 26번의 ‘국어 생활’의 내용 체계의 표를 보면 높임법에 관한 내용을 ‘(2) 국어 생활의 실천’ 부분에서 ‘(가) 바른 국어 생활’에 들어 가야하는지, ‘(나) 문화 속의 국어 생활’의 영역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가)의 경우는 국어의 규범 지식을 위주로 적용하는 내용이며 (나)의 경우는 지식의 차원이 아닌 즉 단순한 규범을 벗어나서 언어 행위의 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높임법 교육은 (가)의 높임법 이론을 통해서 (나)의 국어 생활의 실천 부분으로 연계성 있게 구성되어야 체계적이고 확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대단원에서 높임법과 호칭어, 단위어를 함께 단원으로 묶어 있는데, 단원 체계의 일관성이 없다고 본다. 높임법의 내용 범주 안에 호칭어는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리고 언어 예절 측면에서 언어 생활을 가정하였을 때, 단위어는 하나의 지식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한 단위어를 잘못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언어 예절에 어긋난 표현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높임법의 명칭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본고 앞부분 이론에서 높임법의 명칭

을 존대법, 경어법, 대우법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각 학자마다 사용된 명칭이 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교과서에서는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 ‘한국 교육 미디어’ 교과서는 높임법을 ‘높임말과 낮춤말’로 ‘하십시오체’를 ‘아주 높임 말씨’로 기술하였다.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혼란을 줄 소지가 있어, 각 교과서는 학교 문법에 따른 용어<sup>30)</sup>로 먼저 용어에 대한 통일성을 갖춰야 하겠다.

교과서의 교수 활동 문제에서 살펴본 결과 기존의 이론 중심 문법 학습과는 다르게 영상 매체를 이용하거나 놀이를 통해서, 모듈별 토론 활동하기 등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중앙교육’ 교과서에 제시된 모듈별 활동인 텔레비전 드라마를 녹화하여 높임 표현 사용에 대한 문제점 파악하기 활동이나 ‘법문사’ 교과서에 제시된 ‘가로 세로 풀기’(퍼즐 게임)를 통한 활동은 학습자에게 동기 유발과 흥미를 잘 이끌어 자연스럽게 높임법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 활동은 기본적 이론을 확인하는 수준의 활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순한 지식 습득을 위한 활동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예문을 제시해 주고 잘못된 높임 표현을 찾고 바르게 고쳐 보기 활동이다. 이런 활동은 학습자에게 다소 어렵거나 딱딱한 수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루하고 딱딱한 수업 활동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역할극 활동이다.

역할극 활동은 ‘한국교육미디어, 블랙박스, 대한교과서’ 교과서에 모듈 활동으로 각각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상황과 역할이 간단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적인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따른 의사 표현 활동으로 연결될 수 없다. 이것은 역할극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기보다 수업 시간에 마지막 단계로 정리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역할극 활동을 통해서 언어 예절의 높임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

30) 학교 문법의 상대 높임법 용어 (이관규, 2003)

	높임 표현		낮춤 표현	
	격식체	하십시오체 (아주 높임)	하오체 (예사 높임)	하게체 (예사 낮춤)
비격식체	해요체 (두루 높임)		해체 (두루 낮춤)	

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높임법의 기본 이론을 학습하고, 그 학습한 것을 실제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가 설정된다면, 그 실행 단계에서 모둠원은 토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준비가 되어져서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단순 연기 차원이 아니라 역할극 실연을 하므로 언어 예절에 대한 사용 능력이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높임법 교육은 통사론 단위에서 높임법 체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높임법은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친분관계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높임법 교육의 최종 목표는 학습자가 높임법 체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담화 맥락에서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어 생활 교과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실천적인 능력을 키우는 활동 중심의 학습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른 국어 생활’ 지도에서는 규범을 단순 암기시키는 방식을 지양하고, 규범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즉 국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어의 규범에 대한 단순 암기식의 학습은 의미가 없으며, 표현과 이해의 언어 활동 과정에서 적용하고 활용하는 활동 중심으로 학습이 조직되어야 한다.<sup>31)</sup>

따라서 본 연구는 언어 예절에 따른 높임법의 표현 활동으로 여러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극 활동을 모색하였다. 학습자는 다양한 의사소통 과정 속에서 사고하고 유추하여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한다.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바른 높임 표현들을 익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높임법과 관련된 언어 생활을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실제적인 상황을 통하여 높임 표현은 언어 표현에 있어서 중요하고 언어 예절 꼭 필요한 요소임을 학습자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3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교육 인적 자원부, 2001, p.117.

## IV. 국어 교육과 역할극 지도 교육 방안

### 1. 국어과 교육의 역할극

역할극<sup>32)</sup>은 사람들이 가지는 다양한 역할을 경험해 보거나 점검하여 보는 활동이다. 즉 역할극은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그것을 해보거나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한다.

역할극을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그 역할극을 통하여 보다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역할을 맡아서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하여 교육적인 의의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어과 교육에서 역할극은 중요한 교수·학습의 모형이 될 수 있다. 국어과에서 다루는 내용이 대부분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어과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 영역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다루면서 다양한 역할들로 이루어져 있다.

국어과에서 역할극을 수용하여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학습활동에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하면서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통하여 언어 생활을 익혀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역할극은 학습자들이 자신이 학습해야 할 목표를 중심으로 장면을 구성하여 역할을 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표면적인 면에서 바른 자세를 강요할 수 있지만 학습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지 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접근을 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자신이 직접 체험하여 봄으로써 그 의미와 학습 목표에 분명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역할극은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표면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접근을 통하여 효과적인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역할극은 각 영역의 통합적인 성격을 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어과의

---

32) 역할극의 용어로 '역할놀이', 넓게는 '교육연극', '드라마'라고 표현 되었지만 '역할극'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여러 학습 요소를 함께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문학영역이나 다른 영역에서도 내면적인 이해와 표현, 학습 방법과 태도를 함께 지도할 수 있는 좋은 교수·방법이 될 수 있다.

## 2. 국어 수업에서 역할극 방법 및 유의점

### 1) 역할극의 절차

주어진 언어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거나 이해하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극을 통하여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서 문제를 학습자들이 인식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여러 가지로 가정하여 보는 것이 첫 단계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준비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역할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역할을 정하는데 있어 학급 전체적으로 역할자와 관찰자, 토론자로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 활동에서 역할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역할놀이에서 역할을 맡아서 할 역할자를 선정할 때는 각자가 보다 공감하는 역할이나 보다 잘 소화해서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맡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단계는 역할극을 실연하는 것이다. 역할극을 실연한다는 것은 단일한 상황을 한 번 실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문제를 충분히 짚어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역할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실행에서도 단순히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역할을 한 사람과 관찰자들이 역할극을 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여 보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다시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 실연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반복적인 실행이 학습 목표에 도달되었다고 판단되면 역할극을 멈춘다. 단순히 각자의 연기력을 보기 위한 역할극이 되지 않도록 목표 달성의 여부를 가지고 진행과 멈춤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단계로 역할극의 결과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에도 역할의 잘함

과 잘못함을 떠나서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를 위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할극의 수업 모형 단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역할극의 절차

1단계: 준비 단계	2단계: 과정 단계	3단계: 활동 단계	4단계: 점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제시 단계</li> <li>• 문제 인식 접근 단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자 결정 단계</li> <li>• 관찰자, 토론자 결정 단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극 실연 단계</li> <li>• 토의 단계</li> <li>• 재실연 단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토의</li> <li>• 목표 도달 점검 단계</li> </ul>

## 2) 운영상의 유의점

역할극을 실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

첫째, 말하기·듣기를 중심으로 각 영역을 통합하여 구성하되, 표현 활동과 이해 상황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역할극의 화제를 선정하고, 조직,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역할극 ‘상황’을 설정할 때, 최대한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넷째, 역할극의 활용에 있어서 동기 유발의 기능, 문제 상황 제시의 기능, 언어 사용 연습의 기능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업이나 교재 재구성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높인다.

다섯째, 각 차시별 학습 활동이 지나치게 분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여섯째, 실제로 학생들이 이해와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한다. 예를 들어 역할극을 함에 있어서 소집단 방식으로 운영하여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말하고 듣는 활동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한다.<sup>33)</sup>

## 3. 역할극의 교육적 효과

33) 신헌재 외, 『학습자 중심의 국어과 수업방안』, 도서출판 박이정, 2002, pp.58~78.

연극은 인간 생활과 인간이 향유하는 예술의 총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기초로 역할극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정현, 2000)

- 가. 개성화: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개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 나. 협동: 놀이에 참여하는 과정은 교사들이 학습자들에게 경쟁보다는 협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다. 동기: 연극적 방법은 흥미로운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그 깊이를 더할 수 있다.
- 라. 통합: 드라마는 언어와 사고, 행동들이 함축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합하는 행태이다.

역할극의 교육적 효과를 언어 사용 능력 향상 면에서 정리하여 보면 언어는 사회 생활 속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고 과정을 표현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역할극의 과정은 서로 협동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언어 사용 현실이 통합적으로 되어 있어 언어사용 능력을 분리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사고, 행동들이 함축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sup>34)</sup>

#### 4. 역할극과 언어 교육과의 관계

##### 1) 협동학습의 역할극과 언어 교육

협동 학습 구조는 소규모의 집단에 공통의 학습 목표가 주어지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이 서로 도우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학습 구조이다. 여기서는

---

34) 노태권, 「교육연극을 통한 한국어 사용 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5, pp.13~14.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을 가지게 되는데 즉 타인이 성공해야 자신도 성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협동학습 공간에서 개별 구성원들과 소집단 공동체 사이에는 이러한 밀고 당김의 역학 관계가 형성되며, 이 관계 속에서 개인의 창조적인 언어들이 표출되고, 공동체에 의해 규제되기도 한다. 이는 교육연극은 연극을 만드는 과정에서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맡은 일을 하면서 서로 협동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언어사용 능력이란 교수·학습에 의하여 습득되기보다는 사회화의 과정을 통하여 습득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언어 교육에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혼자만의 활동이 아니라 상호 협동하고 협력 학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사회화의 과정으로 언어의 학습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학습자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데 역할극 방법을 활용하고 적용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면서 자연스러운 상호 협력을 통한 언어 학습이 생기게 된다.

## 2) 구성주의적 역할극과 언어 교육

최현섭(2000)은 구성주의는 지식이 무엇이며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인식론으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는 언어 교육에서 교사의 지도에 의해 학습자가 내용을 습득하는 기존의 교육방법을 지양하고, 학습자가 자기의 실생활과 관련하여 스스로 학습요소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동구(2000)의 '연극 활동은 학습자들 자신의 경험에서 상상을 이끌어내 연극 활동을 꾸민다는 면에서 현실세계를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수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극 활동의 상상력이 경험을 기반으로 미학적인 요소에 접근한다고 보면, 구성주의 철학과 수용이론이 교육연극의 이론적 기본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역할극과 구성주의와의 관계를 적절히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언어 사용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모든 경우에는 집

단 구성원들과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집단 구성원들과의 이러한 활동을 언어교육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역할극이라고 하며, 언어 교육에서 과정 중심 교육과정이 중시되고 자신의 경험과 실생활을 적용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측면으로 역할극을 통한 구성주의적 방식을 만들어 가는 언어 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 3) 총체적 언어 교육 활동과 역할극

총체적 언어 교육은 학습자를 전인적 존재로 보고, ‘의미를 위해 그들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세계와 관련짓기 위해, 그리고 그들 각자가 전인이 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데 역점을 둔다. 언어 사용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주체가 되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실제적이어야 한다.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행위는 모든 것이, 언어의 직접적인 사용이며 역할에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활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습자들이 언어 사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제적이고도 다양한 언어적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서로 서로를 위해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총체적 언어학습의 학습자, 언어,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을 보면 언어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얻을 수 있다. 즉 언어란 개인적인 것이므로 개인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며, 언어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있다는 것, 언어 학습은 실제적인 상황에서 학습자에 유의미한 내용일 때에 효과적인 언어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sup>35)</sup>

## 5. 역할극을 통한 언어교육의 방향

### 1) 현장 중심의 언어교육

언어를 교육하려면 언어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 환경이 제공되어야

---

35) 위의 논문, 노태권(2005), pp.16~18.

할 것이다. 여기서 현장 중심의 언어교육이란 학습자들에게 언어 사용의 구체적 현장을 경험하게 하여 학습자들의 언어적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드라마는 개연성이 있는 가상의 현장 공간을 설치하여 개인에게 그것을 통한 경험의 폭을 넓고 깊게 하는 지성적 활동이며,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의 장(場)을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학습자들은 드라마가 설치한 가상 공간에서 모방을 통하여 본질을 인식하고 놀이를 통하여 자발적인 경험을 쌓고, 상징을 통하여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역할극은 대상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일종의 드라마 형식으로 자기 확산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학습자의 언어를 통한 사회성, 인성 등을 계발하며 성숙한 언어 사용자가 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텍스트를 통해 상황이나 대상에 관련한 언어를 정밀하고 세심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2) 창의적 사고 중심의 언어교육

우리나라 국어교육의 목표가 ‘언어 사용 기능 신장을 통한 창의적 사고력 계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러나 언어 사용 기능을 통한 창의력 계발이 쉽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언어를 통한 창의적 사고력 계발의 방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창의성은 개념상의 혼란은 있지만 그것을 언어 활동으로 좁혀 적용해 보면 언어의 본질을 정신의 창조적 활동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언어란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이기 전에 정신 활동을 통하여 세계를 발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상을 기존의 의미와는 달리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거기에서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창의력 계발을 위한 언어 교육의 본질은 학습자의 잠재된 감수성을 환기시켜 상상력과 창의력을 계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학습자의 잠재된 감수성을 환기시켜 상상력과 창의력을 계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교육을 위한 유용한 방법으로는 드라마, 즉 역할극을 들 수 있다.

역학극은 본질적으로 세계를 가상(假想)과 실제(實際)로 통합된 하나의 상징 체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징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상상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역할극 활동의 과정은 끊임없이 이런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 감수성을 환기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3) 통합 중심의 언어교육

언어에 대한 언어 사용자의 지적 태도가 이성과 감각, 몸과 마음, 실제(實際)와 가상(假想), 언어와 준 언어(paralanguage), 동작학(kinesics) 등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거기에서 총체적 의미를 획득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 중심의 언어교육은 하나의 철학적 인식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의 통합 문제 역시 드라마 관점에서 보면 ‘말하기/듣기/읽기/쓰기’라는 전통적인 기능이 통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각 언어나 신체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한 ‘보기(looking) 혹은 보이기(To be looking)’의 기능까지 통합되어 있다. 역할극은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이외에 수많은 비언어적인 이미지 언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당연히 ‘보기 혹은 보이기’ 기능이 통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언어의 기능이 통합되는 것은 언어의 속성 자체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 언어가 통용되는 실제상황이 그렇기 때문이다.

### 4) 활동 중심의 언어교육

언어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가정적(假定的) 언어 상황이나 문학 텍스트의 허구적 상황 속에서 학습자가 그 상황 속의 인물이 되거나, 허구 속의 인물이 되어 직접 행동을 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며, 그 경험은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거나 상상력을 기르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역학극은 이런 활동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신체적 활동뿐만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이해한 내용이나,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언어적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활동들을 제공한다. 즉

신체, 시각, 청각, 음성, 문자 언어들이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되는 것이다.<sup>36)</sup>

---

36) 황정현 외, 『국어교육과 교육연극의 방법과 실제』, 도서출판 박이정, 2004, pp.32~37.

## V. 역할극을 활용한 높임법 지도의 실제

본 절은 앞 장에서 살펴 본 역할극을 활용한 국어과 교수 방안을 토대로 언어 예절과 높임법 지도를 역할극에 활용한 수업 지도 내용이다. 역할극 이용한 수업은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이 이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표현과 언어 활동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학습을 강조한 ‘국어 생활’ 교과서(중앙 교육)의 ‘바른 높임 표현’의 단원이다. 언어 예절과 높임법의 교수-학습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교수-학습 대상으로 필자는 2007년 4월에 교육 실습을 한 S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1학년을 선정하였고, 2학급을 2차시에 걸쳐 실제 수업을 진행하였다.

### 1. 학습 지도의 계획

(1) 대상: 10학년 수업 차시: 2차시

(2) 단원명: 3. 바른 높임 표현

(3) 단원의 개관

‘바른 높임 표현’에서는 다양한 높임 표현이 국어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이며 언어 예절의 핵심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부딪히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정확하고 바른 높임 표현들을 익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역할극을 통하여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단원 학습 목표

- ① 국어 생활에서 높임 표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 ② 일상 생활에서 바른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역할극을 통해 문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 ④ 모듈별 내에서 각자의 배역을 정한 후 역할극을 할 수 있다.

<표 6> ‘역할극을 통한 언어 예절의 높임법 지도’ 학습 계획

소단원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차시
(1) 바른 높임 표현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상황에서 높임 표현의 양상 파악한다.</li> <li>• 높임법에 따른 언어 예절의 기본을 알 수 있다.</li> <li>• 높임법의 사용 기준 및 종류를 알 수 있다.</li> </ul>	1/2
(2) 상황에 맞는 역할극 시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극의 활동 시 준비할 것과 유의점을 파악한다.</li> <li>• 모듈별로 단 위에 나와서 역할극 활동을 한다.</li> <li>• 다른 모듈은 주의 깊게 듣고 상호 평가를 한다.</li> <li>• 역할극 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소감을 작성한다.</li> </ul>	2/2

고등학교 ‘국어 생활’ 교과서에 제시된 언어 예절과 높임법의 단원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언어 예절에 맞는 높임법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역할극 활동을 중심으로 학습 방안을 고안하였다.

고등학생 10학년을 전제로 수업 차시를 2차시로 나누어 학습 계획을 작성하였다.

1 차시에는 높임법의 기본 지식을 학습한다. 역할극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높임법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한다. 1차시의 ‘(1) 바른 높임 표현’에서는 여러 상황에서 높임 표현의 양상을 파악하고 언어 예절의 기본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높임법이 사용되는 기준과 종류를 학습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높임 표현이 국어의 주요 특징의 하나이며 언어 예절의 핵심임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역할극 활동 이전에 언어 예절의 기본을 알고 문제 상황 속에서 올바른 표현 활동을 한다. 모듈별로 각각 배역을 정한 후 제시된 대본을 보고 읽는다. 그 다음 단계는 잘못된 대화 내용을 고치는 활동을 한다. 언어 예절에 맞게 대화를 고친 후 대화를 읽어 봄으로써 고치기 전 단계와 비교해 보고 학습자 스스로 생활 속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다음 시간에 역할극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모둠별로 상황이 정해진 유인물을 배부하여 조원들과 함께 대본을 짜고, 배역을 정하여 연습해 오기로 한다.

2 차시에는 역할극 실연 과정이다. 1 차시에서 모둠별로 상황을 선택한 것을 각각 배역과 대사를 만든 것을 교사는 검토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다. 5분 정도 연습한 후 차례대로 역할극을 한다. 다른 모둠은 주의 깊게 듣고 나눠준 상호 평가지에 작성한다. 그리고 소감문을 작성한다. 소감문을 작성하면서 역할극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역할극을 함으로써 좋았던 점 등을 기록하게 한다.

(5) 단원 지도의 유의점

- 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봄으로써 바른 높임 표현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습자의 실태를 관찰하여 발표력이 미흡한 학생이 자신감을 갖고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③ 역할극의 상황을 선정하고, 대본쓰기,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④ 역할극 ‘상황’을 설정할 때, 최대한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 ⑤ 실제로 학생들이 이해와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한다.
- ⑥ 역할극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학습지도안

(1) 1/2 차시

<표 7> 학습지도안 1/2차시

단원	Ⅱ. 바른 국어 생활			소단원	3. 바른 높임 표현		차시	1/2
대상	2	장	각 교실	지도일시	2007년 4월	지도		

	학년	소		교사	
<b>학습 목표</b>	① 국어 생활에서 높임 표현의 중요성을 안다. ② 높임법에 따른 언어 예절의 기본을 알 수 있다. ③ 일상생활에서 바른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				
<b>학습 과정</b>	<b>학습 내용</b>	<b>교수·학습 활동</b>		<b>시 간</b>	<b>학습 형태</b>
		<b>교 사</b>	<b>학 생</b>		<b>유의 점 및 학습 자료</b>
도입	<p>전시 학습 확인</p> <p>▶ 과제 확인</p> <p>▶ 전시 학습 내용 확인: 학생을 지명한다. '사촌'이라는 관계를 말할 때, 우리는 친·외·고종·이종 사촌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런 것은 국어의 특징 중에서 우리 문화의 어떤 면이 반영된 것인가?</p> <p>▶ 흥미 및 동기 유발</p> <p>전화 통화 예절에 관한 멀티 미디어 자료를 보여준다.</p> <p>두 학생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자신의 언어 생활을 진단해 보기</p> <p>① 친구와의 대화는 욕설과 비속어가 많다.            ② 부모님께 존댓말보다는 반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③ 나는 줄임말이나 이모티콘을 더 많이 사용한다.            ④ 내 목소리는 지나치게 크고 흥분된 편이다.</p>	<p>▶ 과제를 정리한 노트를 제출한다.</p> <p>▶ 지명된 학생은 물음에 답을 한다.</p> <p>우리말에서 특히 친족어가 발달하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대가족을 이루며 살아온 혈연 중심의 문화를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p> <p>▶ 스스로 나의 언어 생활을 진단해 본다.</p>	10	질의 응답	교과서 ppt 멀티 미디어 자료

		<p>⑤내가 말하는 속도는 적절한 편이다.</p> <p>⑥ 내 발음은 표준발음과 거리가 멀다.</p> <p>▶ 학습 목표 제시 ppt를 보며 학습 목표를 읽고 다 같이 읽게 한다.</p>	<p>▷ 다 같이 학습 목표를 읽는다.</p>			
전 개	<p>학습 내용 전개</p> <p>▶ 국어의 높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체 높임법: 문장의 주체가 되는 주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사 ‘께서’,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여 표현한다.</li> </ul> <p>(예) 할아버지<u>께서</u> 우리를 부르셨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대 높임법: 청자를 대우하는 방법으로, 청자와 화자의 관계에 따라 아주높임, 예사높임, 예사낮춤, 아주낮춤 등의 등급을 ‘-버니다, -오, -네, -니다’ 등의 어말 어미를 통해 표현한다. 비격식체는 ‘해체’와 ‘해요체’가 있다.</li> <li>객체 높임법: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것으로, 조사 ‘께’와 ‘드리다’ 같은 동사 자체를 통해 실현된다.</li> </ul> <p>▶ 수행활동하기</p> <p>모둠별로 텔레비전 드라마에 서 다음 상황을 녹화하여 글로 옮긴 후, 이것을 바탕으로</p>	<p>▷ ppt 자료를 보고 경청한다.</p>	20	강의 식	ppt 자료	교과서 모둠 활동



	<p>정한 후 읽어 본다. 읽은 후에 언어 예절에 알맞게 고쳐서 다시 읽어 본다.</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아빠: 미연아, 아빠 왔다.  미연: 아빠, 벌써 왔어?  엄마: 당신 오셨어요?  아빠: 당신은 도대체 어딜 그렇게 쫓다니는 거야. 낮에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엄마: 저는 뭐 매일 집에만 있어야 하나요? 낮에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다가 왔어요.  아빠: 그래, 장하다. 그래서 하나 있는 딸을 저 모양으로 키우는 거야?  엄마: 애는 혼자 키워요? 당신은 애가 지금 몇 학년인지는 아세요?  아빠: 아니,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중학교 중학교 3년이잖아.  엄마: 그건 작년 얘기예요. 애 아빠가 돼 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요?  미연: 조용히 좀 해. 텔레비전을 볼 수가 없잖아.  엄마: 넌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말버릇이 그게 뭐야. 시험 공부는 다 했어?  미연: (태연스럽게)아니.  엄마: 아까 엄마가 시험 공부 부터 하라고 했잖아.  미연: 이따 하면 될 거 아냐. 에이, 신경질 나.</p> </div> <p>▶ 차시 예고 및 과제 제시</p> <p>다음 시간에 역할극 활동을 위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다. 3가지 상황을 설정한다.</p> <p>각 모둠의 대표는 한 가지 상황을 선택하여 모둠원들이 모여서 대본을 작성하고 배역을 정하도록 한다.</p> <p>작성된 대본 대로 조원들과 함께 연습하여 다음 시간까지 오도록 한다.</p>	<p>예절에 알맞게 활동을 해 본다.</p> <p>▷ 메모한다.</p> <p>각 모둠 대표는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p> <p>다음 시간까지 대본을 작성하고 연습하여 온다.</p>	<p>평가지(유인물)</p>
--	---	--	-----------------

(2) 2/2 차시

<표 8> 학습지도안 2/2차시

주 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역할극 시연하기		차시	2/2
학습목표		1. 역할극을 통해 문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2. 모듈별 내에서 각자의 배역을 정한 후 역할극을 할 수 있다. 3. 역할극을 하고 난 후 느꼈던 점을 이야기 할 수 있다.		학 습 형태	모듈별 발표 학습
단계	과 정	학생의 학습 활동	교사의 역할	시간	자 료 / 유의점
도입	동기유발 및 목표확인	▶다 같이 학습 목표를 읽는다.  ▶ ‘역할극의 유의점’을 듣는다. ① 우리가 선택한 문제 상황은 무엇인가? ② 필요한 배역은 무엇 무엇인가? ③ 대화 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④ 언어 예절에 맞는 대화 내용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⑤ 소감 발표 및 상호 평가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학습목표를 읽게 한다.  ▶ 역할극에 대한 유의점을 설명한다.  ▶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평가는 평가가 학습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자체가 교육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5	유인물
전개	활동하기	▶ 활동단계 ① 모듈별로 5명 씩 구성하여 앉는다. ② 모듈별로 각각 상황을 선택하여 배역을 정한다. ③ 적합한 대화 내용을 구성하여 내용을 충분히 연습한다. ④ 각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정을 추리하여 역할극을 한다.	▶ 모듈별로 각각 상황의 내용을 유인물과 상호 평가를 함께 나누어 준다.  ▶ 교사는 먼저 준비된 모듈을 선정하여 무대에 올리도록 한다.	30	유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번째 모둠- 나는 20대 중반의 백화점 직원으로 물건을 사러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눈다.</li> <li>▪ 두 번째 모둠- 명절에 할머니께서 함께 있는 집안 어른들께 나를 소개한다. 한 분은 할머니의 여동생이시고, 다른 한 분은 사촌 형님이 되신다고 한다.</li> <li>▪ 세 번째 모둠- 어제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희동이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3주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함께 축구를 했던 동욱이와 대영이가 문병을 갔다.</li> </ul> <p>⑤ 역할극을 들으면서 평가지에 기록한다.</p>			
정리	소감문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둠별로 역할극을 통해 느꼈던 소감문에 기록한다.</li> <li>느낀 점 (재미있었던 점, 어려운 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는 배역을 맡은 학생의 소감을 먼저 묻고, 나머지 학생(관객)들의 소감을 묻도록 한다.</li> </ul>	10	소감문
평가 차시 예고	마무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간이 허락되면 1명~2명 정도 소감문을 발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감문을 보고 1~2명 정도 발표를 시킨다.</li> <li>▶ 차시 예고</li> </ul>	5	

### 3. 세부 계획안

(1) 1/2 차시

◆ 도입- 전시 학습 확인, 학습목표 제시, 학습의 흥미 유발

이 수업은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언어 예절의 필요성과 그 원리를 알기 위함이며, 높임법을 중심으로 언어예절의 핵심을 알게 하는 데 있다.

국어 높임법의 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흥미 유발을 위해서 전화 통화 예절에 관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보여준다. 이 자료를 통해서 두 학생의 통화 내용을 듣고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일상 생활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언어 예절에 맞는 언어 생활과, 높임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여 학습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게 한다.

◆ 전개- 학습 내용 전개, 모둠 활동

높임법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한다. 상황에 맞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높임 표현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한다. 자칫 지루하고 딱딱한 수업이 될 수 있으므로, 교과서에서 벗어나 교과 내용과 관련된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한다. 높임법 사용에 대한 멀티미디어 자료는 맘대로 양과 할머니가 대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이 대화를 듣고 맘대로 양의 잘못된 높임 표현을 찾아 고치는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 정리 및 평가- 모둠 활동 평가, 차시 예고

수업의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는 모둠 별로 구성하여 제시된 대화를 보고 언어 예절에 맞게 고치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이 활동은 고친 후 배역을 정하여 상황과 그 인물의 특성에 맞게 대화해 보는 활동이다. 제시된 대화문은 높임법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이 언어 예절과는 거리가 멀게 구성되어 있다. 몇 명의 학생들은 올바른 표현은 문장의 끝부분에 ‘-요’자만 붙여주면 높임 표현으로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먼저 상황 자체를 파악하고 어떤 말을 해야지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릴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언어 예절에 알맞은 표현으로 고치는 활동을 마치고 몇 모둠을 지명하여 발표하게 한

다. 그 자리에 앉아서 배역에 맞게 읽도록 한다.

이 활동은 다음 차시에 있을 역할극에 대한 수업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학습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차시에 있을 역할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상황에 따른 역할 대본지를 배부한다. 수업 시간이 전체 3차시로 정해진다면 2차시에 역할극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대본 작성과 발표 연습이 주어질 수 있는데, 전체 2차시로 설정된 관계로 모두 원거리 대본 작성과 연습까지 과제로 제시하였다.

다음은 2학년 2반의 한 모둠이 작성한 것이다.

§ 제시문 < 제시된 대화를 보고 언어 예절에 맞게 고치기 >

아빠: 미연아, 아빠 왔다.  
미연: 아빠, 벌써 왔어?  
엄마: 당신 오셨어요?  
아빠: 당신은 도대체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낮에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엄마: 저는 뭐 매일 집에만 있어야 하나요? 낮에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다 왔어요.  
아빠: 그래, 장하다. 그래서 하나 있는 딸을 저 모양으로 키우는 거야?  
엄마: 애는 혼자 키워요? 당신은 애가 지금 몇 학년인지는 아세요?  
아빠: 아니,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중학교 3학년이잖아.  
엄마: 그건 작년 얘기에요. 애 아빠가 돼 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요?  
미연: 조용히 좀 해. 텔레비전을 볼 수가 없잖아.  
엄마: 넌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말버릇이 그게 뭐야. 시험 공부는 다 했어?  
미연: (태연스럽게)아니.  
엄마: 아까 엄마가 시험 공부 부터 하라고 했잖아.  
미연: 이따 하면 될 거 아냐. 에이, 신경질 나.

F 학생들이 고친 대화문

아빠: 미연아, 아빠 왔다.  
미연: 아빠, 오셨어요?  
엄마: 당신 오셨어요?

아빠: 당신 어디 다녀왔어? 전화해도 안 받던데...

엄마: 낮에 잠깐 친구 만나러 갔다 왔어요.

아빠: 그랬어요? 걱정했잖아요.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아빠: 아니 당신이 해주는 맛있는 저녁 먹으려고 일찍 왔어요.

엄마: 어머? 낮에 친구들을 만나느라 장을 보지 못했어요.

미연: 오랜만에 외식해요.

엄마: 돈이 어딴니? 라면이나 먹자.

미연: 좋아요. \*^^\* 엄마, 나는 치즈라면으로 해주세요.

엄마: 그러잖, 당신은 해플라면으로?

아빠: 그래, 우리 맛있고 행복한 라면을 먹자꾸나.

위의 대화문은 정확한 높임 표현에 맞게 고친 것 보다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전개한 점에서 적절한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시된 대화문에서 상황과 관계없이 ‘-요’자만 붙여주면 올바른 높임 표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아빠’의 대화에서 ‘당신은 도대체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를 ‘당신은 도대체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예요’라고 고치는 경우가 있다. 올바른 언어 예절은 상대방에게 정확한 높임 표현을 하는 것 보다 상황을 파악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릴 수 있으며, 거기에 따른 적절한 표현을 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아야 한다.

## (2) 2/2차시 (역할극 시연)

### ◆도입: 전시 학습 확인

전시 학습을 확인하고 각 모둠의 이름을 정한다.(예: 미나는 괴로워, 꼬꼬와 병아리들 등) 그리고 모둠 별로 작성된 대본이 잘 작성 되었는지 점검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게 한다. 과제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과의 충분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격적인 역할극 활동 이전에 역할극 진행 시 유의점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설명한다. 그리고 역할극 진행 시 상호 평가 방법과 소감문 쓰기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한다. 다른 모둠이 시연할 때 조용한 분위기에서 듣는 태도 또한 언어 예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전개: 모둠별로 준비한 역할극을 발표

교사의 안내에 따라 준비된 모둠부터 역할극을 연행한다.

-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 역할극 준비에 대한 공동 협력의 과정을 드러내어 진지한 분위기에서 역할극이 수행되도록 지도한다. 모든 조원이 참여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역할극 준비 과정에서부터 교사가 확인을 하고, 준비 과정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의 명단을 발표하게 한다.

- 듣기의 중요성 인식하기

→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에서 듣기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른 모둠의 역할극을 주의 깊게 듣고 상황을 파악한 뒤 인물들의 대사가 상황이나 분위기와 어울리는지 학생들 스스로가 평가하게 한다.

상황은 3가지로 설정되었다. 한 반의 인원 에 따라 6모둠으로 나누었으며 한 모둠의 인원은 대부분 5명이고 많게는 6명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두 모둠이 똑같은 하나의 상황으로 주어진다.

다음은 ‘드림’이란 모둠이 역할극을 활동한 대본이다.

☞[상황 1] 어제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희동이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 진찰 결과 희동이는 3주 간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한다. 함께 축구를 했던 동욱이와 대영이가 문병을 갔다. 희동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희동이 어머니께서 들어오셨다.

☞ 배역 정하기

등장 인물의 선정	
▪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다친 희동	이현출
▪ 희동의 어머니	유지희
▪ 같이 축구를 한 동욱	신호경
▪ 같이 축구를 한 대영	박원진

추가: 선생님- 신승주, 간호사- 박미애

☞ 모듈원이 작성한 대본

상황에 따른 대사 내용
<p>희동 어머니: 어머, 희동이 친구들이니?</p> <p>동욱, 대영: (문 쪽을 쳐다보며) 안녕하세요.</p> <p>동욱: 저는 희동욱이라고 합니다. 대영: 저는 이대영이라고 합니다.</p> <p>희동 어머니: 아~ 그러니? 희동이 문병 왔구나.</p> <p>동욱, 대영: 네..저희가 학교에서 바로 오느라 미처 준비한게 없어서 죄송합니다.</p> <p>어머니: (씹긋 미소지으며) 어~ 아니란다.</p> <p style="padding-left: 40px;">(주스를 컵에 따라주며)그러지 말구 여기 주스도 있으니까 좀먹으면서 얘기하렴.</p> <p>동욱: (당황해하며) 아 아니예요.</p> <p>대영: 아 제가 할게요.</p> <p>엄마: 그래 그럼 먹고 있어라.</p> <p>대영, 동욱: 네, 감사합니다.</p> <p>희동: 휴~ 내가 넘어지지만 앓았어도 골인데...</p> <p>(드르르륵) 문이 열리며</p> <p>간호사: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p> <p>(시간이 흐른뒤)</p> <p>간호사: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p> <p>병실 밖... 어머니: (전화를 걸며) 아~ 거기 J고등학교요? 2학년 3반 최희동 학생 학부모인데요. 저희 희동이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요.</p> <p>선생님: 네. 희동이는 좀 괜찮습니까?</p> <p>어머니: 네..3주 동안 쉬어야 할 거 같아요.</p>

선생님: 네..그럼 들어가세요.

어머니: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주후, 희동이와 동욱이 대명이는 즐겁게 축구를 하며 놀고 있다.

‘드림’ 모듬은 인원이 6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상황에 없는 인물, 선생님과 간호사를 추가하여 대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와 선생님과 전화 통화 내용까지 구성하여 참신성이 돋보이는 역할극을 하였고, 상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리: 소감문 쓰기과 평가지 작성하기

- 소감문 쓰기: 모듬별로 역할극을 마친 후에 역할극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좋았던 점, 혹은 깨달은 점 등을 솔직하게 적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소감문 작성을 작성하도록 한다.
- 평가지 작성: 역할극을 수행 중 작성한 상호 평가지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이 때 교사는 작성한 모듬의 이름과 작성자, 조원들을 반드시 기재하게 하여 터무니 없는 평가가 나오지 않게 한다.
- 평가지의 평가 항목: 평가지의 항목은 상황에 따라 교사가 임의로 설정한다. 수행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점 또는 탄력적으로 한다.

- ⓐ 상황을 적절한 대화 장면으로 구성하였는가?
- ⓑ 말을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 ⓒ 대화 내용은 언어 예절에 맞는가?
- ⓓ 대화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가?
- ⓔ 듣는 사람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 ⓕ 역할극 대본이 상황에 맞게 일관성 있게 구성되었는가?

◆평가 및 마무리 : 소감문 발표하기, 시상식 하기

상호 평가를 받아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모둠을 발표하여 시상식을 한다. 모둠원들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평가지에 점수를 주었으므로 1등을 한 모둠에 대해서 신뢰하고 실력을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소감문을 보고 시간의 여유에 따라서 2~3명 정도 발표를 시킨다.

- 한 학생의 소감문이다.

1. 역할극을 하면서 좋았던 점:

기존에는 무의식적으로 언어예절에 어긋나는 말이나 웃어른에 대해 행동을 조심스레 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조원들과의 친목다짐에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2. 역할극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준비시간이 짧아 조금 무성의한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극중 인물의 호칭에 대해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

3. 역할극을 하면서 반성하게 된 점:

웃어른을 향한 언어예절은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은 점 같았습니다.

4. 기타 의견: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 4. 역할극을 활용한 수업의 효과와 반성

1학년 두 학급의 수업을 실시하였는데(A반과 B반이라고 가정) 수업 분위기와 학업 성취 의욕이 높은 A반의 상호 평가는 B반과 다르게 평가되었다. B반의 경우 상호 평가 결과는 한 모둠이 월등히 높았으나, B반은 점수의 차가 모둠별로

고르게 배분되어 평가되었다. 이것을 볼 때, 학급의 분위기에 따라 학생의 학습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A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고, B반은 특정 모둠만 열심히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할극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언어예절의 높임법’수업에 적용하였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어떤 점이 좋았으며,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을 뽑아 소감문을 분석해 보았다.

<표 9> 모형 적용 후 소감 분석

※ 전체 인원:65명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응답 (명)
1. 역할극을 하면서 좋았던 점	▶ 아이들과 즐겁게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상호작용)	29
	▶ 연기를 해서(상황) 재미있어서 좋았다.	25
	▶ 상황에 맞는 언어 예절을 표현하고 사용한 점.	7
	▶ 다른 모둠이 역할극을 하는 것을 보는 것.	3
	▶ 내가 직접 역할극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연기도 해서 좋았다.	2
2. 역할극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 상황과 언어 예절에 맞게 대화하고 구성하지 못한 것이 어려웠다.	23
	▶ 표정 관리와 연기력이 어렵다.	19
	▶ 시간이 부족했다.	13
	▶ 대사 외우기가 어려웠다.	7
	▶ 모둠 단합이 잘 안 되었다.	3
3. 반성 및 기타 의견	▶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잘하고 싶다.	30
	▶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겠다.	15
	▶ 역할극 수업 재밌고 유익한 수업이었다.	20

--	--	--

이상 소감문을 분석하여 정리하면, 많은 학생들이 기존의 강의식 수업과 다르게 직접 체험하고 표현하는 역할극 활동을 통해 수업에 흥미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첫 번째 ‘역할극을 하면서 좋았던 점’ 질문에서 친구들과의 즐겁게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언어 교육은 혼자만의 활동이 아니라 상호 협동하고 협력 학습을 통해 언어의 학습 발달이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볼 때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수업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역할극에 참여하는 과정은 교사들이 학습자들에게 경쟁보다는 협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직접 언어를 구사하고 그 역할에 맞게 표현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느꼈다. 다른 모둠이 시연하는 과정을 보면서 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반 전체의 인원이 참여하여 많은 학생들이 말하고 듣는 활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 있는 수업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학생들이 모둠별로 의논하고 대본을 작성하는 과정 자체에서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또 상황과 언어 예절에 맞게 대본을 구성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그리고 1차시 수업과 2차시 수업 간격이 짧았던 점에서 모둠별로 맞춰 보고 연습할 시간이 적었다. 또한 모둠별 역할극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언어 사용 능력과 높임법에 맞는 표현 능력 여부를 파악해야 더욱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들과의 피드백 시간이 적어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개인별 학습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다음에 기회가 주워 진다면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다짐 속에서 아쉬움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활동 중심의 수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VI. 결 론

높임법은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기능으로, 우리말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모든 언어 가운데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유교 문화와 더불어 계급 구조의 사회적 특징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로 접어들어 언어 양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회 문화는 언어 예절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의식이 남아있다.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많은 불편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회 생활을 통해 다양한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므로 상황에 맞는 언어 예절과 올바른 높임 표현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의 높임법 교육은 이미 모국어 화자인 학습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높임법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를 높이고, 국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국어 현상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교육적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할 만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반성할 일이다.

높임법은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친분 관계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높임법 교육의 최종 목표는 학습자가 높임법 체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담화 맥락에서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고 그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본고는 이런 과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언어 예절에 따른 높임법의 교육 방안으로 역할극 활동을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역할극 활동을 통하여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문제 상황을 학습자가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실천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본고의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II 장에서는 높임법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높임법은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거나, 대상을 대우하는 체계로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 특수 어휘에 의한 높임법 등을 살펴보았다. 학교 문법에서는 상대 높임법을 격식체의 높임 표현을 하십시오체와 하오체로 낮춤 표현을 하계체와 해라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격식체로는 해요체와 해체로 사용된다.

제 III장에서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서를 참고하여 국어 생활의 교과서의 성격과 목표, 내용 체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 생활 교과서 총 9종을 교사용 지도서와 함께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총 9종 중에서 높임법과 관련된 교과서를 선정한 ‘중앙교육, 한국미디어교육, 두산, 블랙박스’ 교과서를 학습 지도 계획과 활동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의 단원에 대한 내용 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높임법 명칭 통일성의 문제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활동 사항으로는 국어 생활 교과임에도 기본적 이론을 확인하는 수준의 활동과 지식 습득을 위한 활동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언어 예절에 따른 높임법의 표현 활동으로 역할극 활동을 제시하였다.

제 IV장에서는 역할극을 국어 교육과 연관 시켜 지도 교육 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역할극의 개념과 역할극의 방법 및 유의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역할극의 수업 모형의 단계로 문제 인식과 준비 단계 → 역할 정하기 단계 → 역할극 실연하기 단계 → 점검하기 단계로 제시하였다.

역할극 활동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검토하여 제시하였으며, 국어과 교육에서 역할극과 언어 교육과의 관계는 협동학습, 구성주의적 학습, 총체적 언어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지닌다.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극을 통한 교육의 방향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 창의적 사고 중심의 교육, 통합 중심의 교육, 활동 중심의 교육으로 강조하고 있다.

제 V장에서는 앞 장에서 설계한 역할극 수업 모형에 따라 높임법 지도를 실시하였다. 실제 1학년 대상을 수업한 결과 역할극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수업에 대하여 흥미를 갖게 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매우 유효했고, 무엇보다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며 역할을 정하고 대본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즐거워하였다. 이는 상호 협동하고 협력 학습을 통해 언어의 학습 발달이 이루어지는 측

면에서 볼 때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수업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경쟁보다는 협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처음 역할극의 수업을 하다 보니 활동 이전에 역할극에 대한 지식과 유의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였고, 역할극을 실연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간의 피드백이 다소 적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역할극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가 필요한 언어 예절과 높임법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았다. 앞으로 활동 중심이 적었던 학습자에게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역할극과 다양한 수업 방법들이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자료 1>

☺ 바르게 고쳐 봅시다. 반:( ) 번호:( ) 이름:( )

제시된 대화를 보고 언어 예절에 맞게 고치기

아빠: 미연아, 아빠 왔다.  
미연: 아빠, 벌써 왔어?  
엄마: 당신 오셨어요?  
아빠: 당신은 도대체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낮에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엄마: 저는 뭐 매일 집에만 있어야 하나요? 낮에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다 왔어요.  
아빠: 그래, 장하다. 그래서 하나 있는 딸을 저 모양으로 키우는 거야?  
엄마: 애는 혼자 키워요? 당신은 애가 지금 몇 학년인지는 아세요?  
아빠: 아니,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중학교 3학년이잖아.  
엄마: 그건 작년 얘기예요. 애 아빠가 돼 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요?  
미연: 조용히 좀 해. 텔레비전을 볼 수가 없잖아.  
엄마: 넌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말버릇이 그게 뭐야. 시험 공부는 다 했어?  
미연: (태연스럽게)아니.  
엄마: 아까 엄마가 시험 공부 부터 하라고 했잖아.  
미연: 이따 하면 될 거 아냐. 에이, 신경질 나.

☺ 위의 대화를 통해 배역을 정한 후 상황과 인물에 맞게 읽어 봅시다.

아빠: \_\_\_\_\_  
미연: \_\_\_\_\_  
엄마: \_\_\_\_\_  
아빠: \_\_\_\_\_  
엄마: \_\_\_\_\_  
아빠: \_\_\_\_\_  
엄마: \_\_\_\_\_  
아빠: \_\_\_\_\_  
엄마: \_\_\_\_\_  
미연: \_\_\_\_\_  
엄마: \_\_\_\_\_  
미연: \_\_\_\_\_

☺ 대화를 언어 예절에 맞게 고치고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자료 5>

◆ **소감문 작성**

모듬이름:            이름:

▣ **역할극을 활동을 하고 난 후 소감문 작성을 해 보세요.**

☼ 역할극을 하면서 좋았던 점:

☼ 역할극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 역할극을 하면서 반성하게 된 점:

☼ 기타 의견



## 참 고 문 헌

### 1. 교육 자료

- 교육 인적 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2001.
- 김광해 외 4인, 『고등학교 국어 생활 교사용 지도서』, (주)한국교육미디어, 2003.
- 김광해 외 4인, 『고등학교 국어 생활』, (주)한국교육미디어, 2003.
- 김대행 외 3인, 『고등학교 국어 생활 교사용 지도서』, 교학사, 2003.
- 김대행 외 3인, 『고등학교 국어 생활』, 교학사, 2003.
- 김흥규 외 2인, 『고등학교 국어 생활 교사용 지도서』, (주)천재교육, 2003.
- 김흥규 외 2인, 『고등학교 국어 생활』, (주)천재교육, 2003.
- 노명완 외 9인, 『고등학교 국어 생활 교사용 지도서』, (주)두산, 2003.
- 노명완 외 9인, 『고등학교 국어 생활』, (주)두산, 2003.
- 심재기 외 3인, 『고등학교 국어 생활 교사용 지도서』, 지학사, 2003.
- 심재기 외 3인, 『고등학교 국어 생활』, 지학사, 2003.
- 임홍빈 외 4인, 『고등학교 국어 생활 교사용 지도서』, 법문사, 2003.
- 임홍빈 외 4인, 『고등학교 국어 생활』, 법문사, 2003.
- 조남현 외 3인, 『고등학교 국어 생활 교사용 지도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 조남현 외 3인, 『고등학교 국어 생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 한철우 외 2인, 『고등학교 국어 생활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주), 2003.
- 한철우 외 2인, 『고등학교 국어 생활』, 대한교과서(주) 2003.
- 한계전 외 4인, 『고등학교 국어 생활 교사용 지도서』, (주)블랙박스, 2003.
- 한계전 외 4인, 『고등학교 국어 생활』, (주)블랙박스, 2003.

## 2. 단행본

- 남기심 ·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2003
- 신헌재 외, 『학습자 중심의 국어과 수업방안』, 도서출판 박이정, 2002
- 이관규, 『학교 문법론』, 월인, 2004
- 이익섭 · 채완,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2004.
- 이익섭외,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1997.
- 이윤하, 『현대 국어의 대우법 유형』, 도서출판 역락, 2001.
- 최현섭, 『구성주의 작문 교수 학습론』, 박이정, 2000.
- 최현섭 외 7인,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2005.
- 황정현, 『교육연극의 이론과 지도의 실제』, 서울교대 초등교육연수원, 2000.
- 황정현 외, 『국어교육과 교육연극의 방법과 실제』, 도서출판 박이정, 2004.
- 캐롤 뷰에지, 황정현 옮김, 『총체적 언어교육을 위한 교육연극』, 평민사, 2004.

## 2. 논문 및 학술지

- 권민선, 「고등학생의 존대 표현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 2005.
- 기수연, 「‘중세 국어’ 지도 방안 연구 -10학년 중심으로」, 인제대 교육대학원, 2005.
- 김남희, 「교육연극을 활용한 학습자 중심의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2003.
- 김미란, 「높임법 지도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2006.
- 노태권, 「교육연극을 통한 한국어 사용 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5.
- 서경혜, 「한국문학교육에서 교육연극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신장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5.
- 신동구, 「연극 놀이를 활용한 희곡 지도 방안 연구」, 서울 교대 석사학위 논문,

2000.

심현태, 「상대 높임법 교육 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이석준, 「교육연극을 활용한 시 수업 방안 연구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중앙대 교육대학원, 2006.

양승희, 「높임법 교육의 내용과 교수·학습 방안의 연구」, 상명대, 2002.

윤천탁, 「학교 문법의 상대 높임법 기술 내용 재고」, 청람어문교육 29집, 2004.

조선미, 「교육연극을 활용한 수필 지도방안 연구 :7차 중학교 국어교재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 교육대학원, 2006.

조연희, 「교육연극을 적용한 토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교대 교육대학원, 2003.

최홍자, 「국어 높임법 지도에 관한 연구: 중학생을 대상으로」, 어문학보, 1995.

채윤희, 「영어군 화자의 한국어 대우 표현의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 2001.

황화성 「초등학생의 높임법 사용과 지도 방안 연구 : 고학년 아동의 높임법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 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0.

## ABSTRACT

Teaching a system of honorifics according to verbal etiquette  
- centering on the high school textbook *Korean Life* -

Yushim Song

Majoring in Kore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system of honorifics which has close effect relation with social and customary phenomena should be stressed as necessary specially for learners. It was guided according to verbal etiquette by using role play, which was effective for teaching and guiding verbal etiquette and the system by enabling learners to approach substantial learning objectives by constructing scenes and playing roles centering on their own learning objectives.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system theoretically. The system displays a honorific attitude or treats an object. It is divided into a system of honoring the subject, a system of

honoring the other party, a system of honoring the object and a system of honorifics by special vocabulary. And examining a manual for a high school curriculum and the high school textbook *Korean Life* showed that the activity at the level of confirming basic theories and the activity for acquiring knowledge accounted for high percentages.

Next, this study explored the concept and method of role play and what one should pay attention to in it. It presented as the stages for a role play class model recognizing a problem and preparing for it → fixing roles → performing role play → checking.

A system of honorifics was guided according to a role play class model in an actual class for the students in Grade 1. Giving the class indicated that the play was very effective to inducing learners to take interest in the clas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it. They had a chance of learning cooperation rather than competition. The class was significant in having provided them with a chance of applying a system of honorifics actively in their actual lives according to verbal etiquette through the activity of role play.